

에모토 마사루 | 양역관 옮김

최초 출간 1994년 1월 10일



물의 결정이 연주하는 치유와 기도의 멜로디

water knows the answers Vol. 2
the melody of the water crystals, healing and prayer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

나무심는사람

물은 생명을 치유한다

우리나라에는 어머니들이 동틀 무렵 우물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있다. 바라는 일이 잘되기를, 큰일을 앞둔 자식이 성공하기를, 온 식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이 물은 아이가 아플 때 먹이기도 하고 정성 들여 약을 달이는 데 쓰기도 한다. 이 '정화수'는 두말할 것 없이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 물에 담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두번째 책은 우리 생활 속에서 물이 지니고 있는 치유 능력, 생명의 힘을 보여준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에 과장을 맞추라"며 우주의 근본 현상인 파동과 공명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설명한다. 욕심을 내고 남과 나를 비교해 버릇하면 불행의 파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주변에 공명을 일으켜 모두 불행해지고 건강도 해치게 된다. 반면 자신의 처지에 감사하고 남과 나누며 잘 어울려 살면 내 작은 행복이 큰 공명이 되어 이웃과 사회, 나아가 온 세계가 행복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책에 실린 물의 결정 사진들은 이러한 진리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행복'이라는 말을 보여준 물과 '불행'이라는 말을 보여준 물은 서로 다른 결정을 나타낸다. '힘내' '참 예뻐' '참 잘됐네' 이런 말들은 모두 활기차고 아름다운 결정으로 나타난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

MIZU WA KOTAE WO SHITTEIRU 2

Copyright © 2003 by Masaru Emoto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used or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ev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articles or reviews.

Original Japanese edition published by Sunmark Publishing Inc.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3 by Tree Planting People Publishing Co.

This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Sunmark Publishing Inc. through InterRights, Inc., Tokyo & Bookcosmos, Seoul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북코스모스를 통한 저작권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나무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물의 결정이 연주하는 치유와 기도의 멜로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

에모토 마사루 | 양역관 옮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가 읽은 사람들에게서 감명을 전해받으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일본판 30만부 판매의 저명한
과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예술자이고 ~~인간학자~~

1970년대 중반부터 물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는 물도 그렇지만
이 책은 물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물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은
나도 알고 있는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을 읽는 것도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머리말

《물은 답을 알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독일에서도 출간되고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999년에 간행한 물 결정 사진집 《물이 전하는 말》도 그랬지만, 이 책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책이 저 혼자 걸어다니면서 먼 외국에까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문화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나도 초청을 받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곧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초청해주었습니다. 마치 물의 요정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그 요정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중에서 늘 빛을 발하며 춤을 추는 알갱이들, 물의 요정,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그 요정들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정들은 힘을 모아 구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만든 구름을 지우기도 하면서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지금에야 물의 요정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떤 무서운 사건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일본 요코하마의 바닷가 마을인데, 집에서 언덕길을 달려 내려가면 바로 해변이 나옵니다. 아주 얇은 바다라서 썰물 때는 저 먼 곳까지 모래사장이 이어지고 바지락, 대합 같은 조개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아직 예닐곱 살밖에 안 된 내가 밀물 때인 그 바다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두 살 위 형을 따라 수영을 하러 갔다가 그만 깊은 곳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작 10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는데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공포에 빠져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나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몸은 점점 더 물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바닷물을 한껏 들이켜고 이젠 끝장이라고 느끼는 순간 한 척의 작은 배가 다가와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수영을 잘하시는 어

머니는 이런 말로 나를 달래주셨습니다.

“물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돼. 그러면 저절로 물이 너를 물가로 실어다 준단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뒤로 나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바라는 방향을 따라 걷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다나 수영장에 가면, 나는 온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드러누워 물의 움직임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저 만치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의 요정이 갑자기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물을 올려 그 결정 사진을 찍는 방법을 창안해 실행에 옮긴 것도 그런 흐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물의 요정이 나를 이끌어준 것이지요.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는 한, 요정들은 반드시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1, 2》도 그런 삶 속에서 태어난 책입니다. 책이 나온 바로 다음부터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감동의 목소리, 그리고 격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독자 여러분들이 그 책들에서 기분 좋은 흐름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뒤에도 나는 ‘물과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물 결정 사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생명의 리듬과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지구를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 물이 알려준 그런 메시지들을 이 책에 가득 담아보았습니다.

그런대로 멋진 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여러분 마음에 잔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2002년 11월
에모토 마사루

차례

머리말_ 5

프롤로그_ 11

- I 행복에 파장을 맞추다_ 29
- 2 물이 연주하는 치유의 멜로디_ 83
- 3 강의 모험, 물의 여행_ 107
- 4 파동, 그 신비의 세계_ 159
- 5 기도가 물에 이를 때_ 185

에필로그_ 213

프롤로그

우주. 끝없이 펼쳐진 고요의 세계.

멀고 먼 저 우주 끝에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드넓은 공간을 떠돌다 별들 사이에서 큰 원을 그리던 수많은 얼음 덩어리들. 그들은 이제 오랜 우주여행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구. 에메랄드빛으로 빛나는 눈부신 얼굴.

가까이 다가옵니다. 대기권으로 들어선 얼음 덩어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안개처럼 퍼져나갑니다. 이윽고 그들은 아래로 떨어져 작은 물방울이 되어 땅에 이릅니다.

구름. 하늘에 그려진 하얀 오브제. 매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예술작품.

어느 지점까지 떨어져 내리면 물방울은 다시 얇은 안개가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 하늘에 하얀 카펫을 펍니다. 구름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비. 나무를 적시고 꽃과 풀에 살며시 내려앉는 물방울.

땅에 떨어진 비는 모든 것을 촉촉이 적십니다. 숲, 풀벌, 꽃... 대지에 다다른 물은 흙에 스며들어 오랜 시간을 거쳐 바위 사이를 뚫고 맑은 용천수가 되어 다시 땅 위로 얼굴을 내밉니다.

강. 눈부신 물보라. 당당한 흐름.

기세 좋게 흠뻑물을 무너뜨리며 흐르는 탁류가 모여 강이 된다. 광야를 적시며 아래로 흘러가는 몇 줄기의 강. 생명의 우편집 배원.

백사장. 맑게 갠 하늘.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는 바다. 밀려오는 하얀 파도.

아주 오랜 옛날, 여기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은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지구 문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아침 안개. 푸른 나뭇잎. 잎맥을 따라 떨어져 내리는 아침 이슬.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물의 형태. 서늘한 아침 공기가 안개가 되어, 숲속을 떠돌고 있는 물의 혼을 깨워 아침 이슬로 바꾸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우물물. 손가락이 시린 물. 아이들의 웃음소리.

뒷마루에 걸터앉아 수박을 먹습니다. 수박은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여 우리에게 달콤한 과즙을 선사합니다. 우물물은 차갑고 맛있습니 다. 물과 인간이 사이좋게 지내던 시절에 대한 향수.

매립된 바다. 굴뚝. 버려진 페트병.

언제부터가 인간은 물에 대한 고마움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 차갑고 맛있던 우물물과 샘물이 오염되어버렸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마실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페트병에 담

긴 물에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전쟁. 희망과 절망.

물의 오염은 우리 마음의 오염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문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어디로 가려 하는 걸까요.

물 결정. 크리스털 광채. 또 하나의 희망. 새로운 모험의 시작...



전작 《물은 답을 알고 있다 1》이 여러분 마음의 샘물에 어떤 파문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세상에 나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물 결정을 통하여 대자연의 진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데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보다 더 멋진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이런 책을 만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보물로 삼고 싶습니다.”

어느 여성이 엽서에 적어 보내주신 글입니다.

또 어떤 남성 독자는 이런 감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다니,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과연 그럴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류의 오랜 가르침, 기도, 종교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단순한 미신이나 환상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에 기초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참으로 기분 좋은 편지도 받았습니다.

“일흔여섯이 된 아버지가 ‘남이 권해준 책 가운데 가장 좋았던 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관을 뒤바꿀 정도의 책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말씀을 물에 보여주고 결정 사진을 찍으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물 결정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끌려 함께 진동하며 하나로 이어져 감동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하여 10명도 넘게 전화를 걸어 소개했고 그 자신도 세 권을 사서 선물을 했다는 분에서부터 두 권을 사서 애인과 함께 읽었다는 분까지, 정말 고마운 사연들이 담긴 편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면 위에 잎사귀 하나 떨어진 것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 파문은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에콰도르, 브라질 등 아메리카 대륙 여러 나라, 나아가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타이완 등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강연을 했고, 한결같이 분에 넘치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2001년 6월에는 그리스정교회의 초청으로 호화여객선을 타고 아드리아 해를 항해하면서 열린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인과 과학자가 모여 그리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 각지에 있는 항구를 돌며 심포지엄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과학자들이 참가한 '종교, 과학, 환경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란 이 행사는 그때가 네번째로, 초대할 사람과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명단에 없던 나는 심포지엄 주최자 가운데 한 분인 그리스 여성이 행사 직전에 초대해주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포지엄이 열리기 석 달 전에 우연히 딸이 보여준 물 결정 사진집을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결정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강연을 마쳤을 때 참가자들이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1권에서 소개했던

루퍼트 쉘드레이크 박사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 결정을 본 사람들 마음이 넘쳐흘러 감동이 감동을 부르고 그 에너지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조용하면서도 힘차게 흐르는 커다란 강물을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결정이 현대문명 속에서 메말라버린 사람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었다고. 또 생명의 광채를 잃어버린 인류와 이 문명을 소생시켜주는 힘이라고. 무엇보다 물 결정 사진을 통해 세계 곳곳의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1권에도 썼지만, 살아 있다는 것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땀을 만들어 물을 가두어두면 물은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인간도 피의 흐름이 멈추면 생명활동이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도시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독일 베를린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공과대학의 대강당에 1천 명 이상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를린은 과거 어느 날 갑자기 벽이 세워져 도시

자체가 나뉘고 끊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나라나 도시가 분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둘로 나누는 것보다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몸을 둘로 나누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은 흐르고 싶은 대로 흘러야 합니다. 1961년, 이 베를린 한가운데에 벽이 세워지고 도시 전체가 나뉘어 끊김으로써 얼마나 많은 생명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혀야 했습니까?

그리고 28년 뒤, 마침내 벽이 무너지고 물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70퍼센트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의도나 이데올로기로 인간의 자유로운 생명활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물과 마찬가지로 늘 흐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향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앞을 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다. 감동적인 기립박수였습니다.

그러한 열기와 공감은 사람들 사이로 전해져 큰 소용돌이로 변해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더 큰 파도가 되어 멀리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 거기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부색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공명共鳴하여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작고 작은 한 알의 물 결정에서 시작된 모험은 이렇게 하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장관을 이루며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물 결정 사진은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더 순수하고 맑은 부분과 공명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과 감사와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넘쳐흐를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모험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또 물 결정 사진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뻐요' '정말 멋져요' '사랑·감사'—물에 이런

말들을 보여주면 그 물의 결정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띠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들 마음이 우주 만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습을 드러내준 것이 바로 물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가 멸망하기를 바란다면, 그것 또한 실현될 것입니다.

물 결정이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문명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파괴된 건물의 잔해에 깔려 수많은 목숨이 죽어갔습니다. 슬픔이 증오를 부르고, 증오가 새로운 슬픔을 낳는 도미노현상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규하는 사람들, 절망의 눈길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지금, 우리 인간은 잃어버린 소중한 뭔가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물 결정은 이런 진실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많은 사람들의 눈이 물 결정 사진 덕분에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섭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바람에서 물 결정 연구를 시작한 내 마음속에도 언젠가부터 커다란 과제가 하나 싹트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계 모든 이가 웃음 띠는 얼굴, 감동으로 넘치는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런 표정 하나하나가 찬란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살아 있는 지구 그 자체이며, 우주 속에 등실 떠 있는 아름다운 결정이 아닐까요?

물 결정에서 세계 평화로, 이것은 너무도 거대하여 우스꽝스럽기조차 한 비약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물 결정은 우리에게 이 우주의 또 다른 얼굴 하나를 보여준다

다. 물은 자유자재로 제 얼굴을 바꾸어 우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한순간의 세계입니다. 50개의 살레에 담은 물방울은 영하 25℃에서 두 시간 반 동안 냉동되면 동그런 알갱이가 됩니다. 그것을 영하 5℃로 온도가 맞춰진 방에서 200배 배율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결정이 나타나는 시간은 고작 2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고 하얀 얼음 알갱이가 자라서 육각형 모양을 띠었다가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 과정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물이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자신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세계입니다. 물 결정 사진을 본 사람들은 누구든 그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마치 어릴 적에 들여다봤던 만화경처럼, 보는 사람을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물 결정 사진이 언뜻 보여주는 세계, 그것은 파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파동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앞서 낸 1권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설명할 때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 첫번째가 '진동'입니다.

우주 만물은 독자적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고, 그것은 파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자역학이 세상에 나오면서 상식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의 본질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입니다. 생물이건 광물이건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이 진동하면서 고유의 주파수를 가집니다.

쉽게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빛깔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따스한 색인지 차가운 색인지, 선명한 색인지 은은한 색인지, 피부를 통해 온도나 질감 같은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깔의 정보를 파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요? 빛깔은 제각기 고유한 파동으로 자신의 정보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능력자 가운데는 눈을 감고 손으로 만져서 글을 읽기도 하고, 봉투에 든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동의 개념을 도입하면, 이것 또한 특수한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글자를 종이에 써서 물이 든 병에 붙이거나 사진 위에 물을 올려놓았을 때 물 결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요? 물이 글자와 사진의 파동을 충실하게 감지하여 기억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동을 설명하는 두번째 키워드는 ‘공명’입니다.

간단히 말해 공명이란, 파동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전화를 걸어도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말을 나눌 수 없습니다. 수신자가 없으면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흔히 호흡이 잘 맞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정보가 매끄럽게 잘 오감을 뜻합니다.

공명이라는 현상은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저 사람 싫어!’ 하고 생각하면 심중팔구 그 사람도 당신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음이란 참 이상하게도 남에게 전달됩니다. 것처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그 파동은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당신은 사랑의 파동을 보내는 발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멋진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동의 세계를 아는 것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동을 설명하는 세번째 키워드는 ‘닭은꼴’입니다.

닭은꼴이란, 미시micro 세계는 거시macro 세계를 상징하고, 거시세계는 미시세계를 확대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아홉 개 별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를 상징하고,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랙털fractal 이론과도 통합니다. 나뭇가지를 보면 가지 끝이 갈라지는 모양과 등치에서 커다란 가지가 갈라져 나오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곧 같은 형태의 가지가 모여서 커다란 나무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프랙털 구조라고 합니다.

프랙털 구조는 자연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해안선이나 강의 굽이, 구름의 모양도 프랙털 구조입니다.

물 결정도 그러합니다.

물 결정은 왜 육각형일까요. 물 분자는 결합할 때 육각형 구조를 띠어야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육각형 구조는 너무 작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육각형들이 결합하여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면 더 큰 육각형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분자의 배열과 현미경으로 보는 물 결정은 프랙털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시세계를 관찰하면 거시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똑같

이 거시세계를 살펴보면 미시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들어 간략하게 파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붓다는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법칙이라 생각하여 ‘제행무상 諸行無常’이란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흐르면서 자신을 정화하기에 물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에 필요한 영양을 나르고 불순한 것들을 씻어내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모든 것은 물과 함께 흐릅니다. 당신의 삶 또한 물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자연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의 법칙 아래 질서정연하게 흘러, 태어나고 또 사라져갑니다. 그런 ‘순환’이야말로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유일하게 그 법칙을 거스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쓸데없는 욕망과 자존심,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자연스럽게 흐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욕이 낳는 전쟁,

중요심 때문에 일어나는 비애, 무관심에서 시작된 오염... 그 모든 문제가 자연의 흐름을 왜곡하고 한곳에 고이게 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산처럼 쌓인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고도 과감하게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행복을 찾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평화를 회복하는 것, 그리하여 보석처럼 빛나는 이 지구를 지켜가는 것... 모든 것은 순환하는 데서 태어납니다. 물이 모든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보세요. 물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물 결정이 비춰주는 환상의 세계에 깊이 잠겨보세요. 언젠가 당신도 물로 돌아가고 자연의 흐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몸도 발걸음도 가볍게 가슴 설레는 이 느낌. 그런 감각과 함께 당신의 눈앞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흐르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물이니깐요.

행복에 파장을 맞추다 I

사람의 인생은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 끝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저 태곳적 바다에서 생명이 태어날 때의 과정을 충실하게 재현합니다. 양수의 성분은 바닷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태아는 그 작은 바다에서 아가미호흡을 하며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준비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때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솜이나 국화 잎에 물을 묻혀 죽은 이의 입을 적셔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한 번 생명을 회복하라는 간절한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생명 그 자체라는 사고방식이 있기에 생겨난 풍습이 아닐까요?

살아 있는 한 물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순환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생명에 숨결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형태로 보여줍니다.

물을 얼려 결정을 관찰하면, 그 결정은 현미경 속에서 성장하여 꽃을 피웁니다. 그런 물의 모습은 삶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결정은 얼음의 틈새에 있는 공간에서 겨우 얼굴

을 내미는 아주 작은 알갱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윽고 그 알갱이는 수십 초 사이에 크게 자라 육각형 모양의 몸을 드러냅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동안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육각형의 각 모서리에서 식물의 싹 같은 것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조각가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듯, 알갱이 주위에는 멋들어진 테두리가 드러나고 단정한 육각형 결정이 완성됩니다. 이제 원숙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잠시 후, 세세한 부분까지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던 결정은 힘을 잃고 녹기 시작합니다.

결정이 형성되어 녹기까지는 약 2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물 결정은 아름다운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멋지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녹은 뒤부터입니다.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가올 물, 새로운 삶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정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울 때는 녹기 바로 직전의 몇 초 동안입니다. 곧 결정은 만년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노년기야말로 인간이 가장 원숙하고 아름답게 빛나야 할 때 아닐까요?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과 기쁨, 인간에 대한 연민과 자

애, 그런 소중한 것들을 모두 갖추어 다음 시대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노인이 해야 할 일 아닐까 합니다.

물론 노년에 들어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젊은 시절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고 알차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깊이 있고 아름다운 삶의 결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흘러야 합니다.

그 흐르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물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결정이 보여주는 짧은 삶,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물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 결정이 보여주는 2분간의 삶

결정이 나타났다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2분. 거기에는 인생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얼린 물방울 끝에 생성된 작고 하얀 알갱이가 성장해갑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름다운 장식이 달린 휘황찬란한 결정을 보여주고는 녹아버립니다.

물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리병에 든 물에 글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물은 어떻게 말의 뜻을 해석했을까요.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깨끗하게 가공한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입니다. 균형 잡힌 삶의 자세가 행복의 조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얇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결정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놓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행은 행복의 반대말이 아니라 행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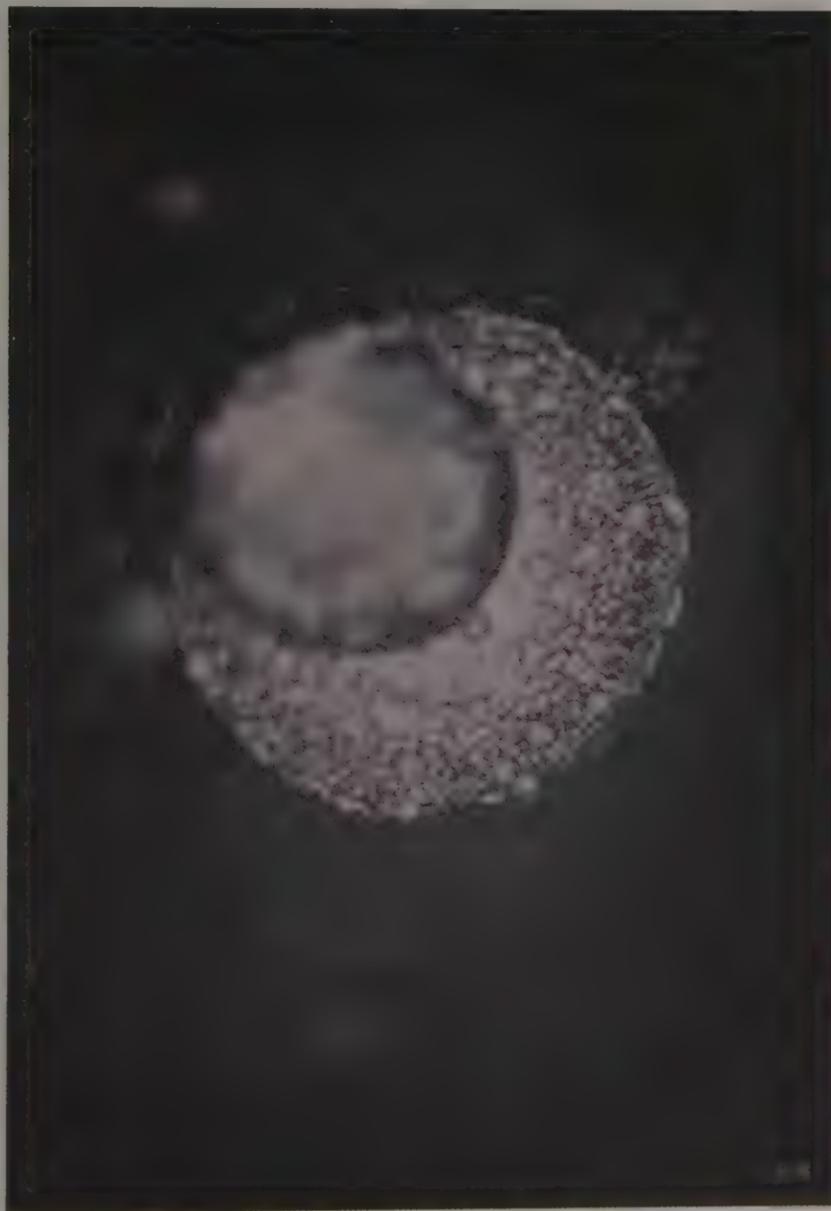
'힘내'는 약간 긴장되고 위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는 개성을 자극하는 말일 것입니다. 힘차게 뻗어가는 느낌을 주는 모습입니다.



'참 예뻐'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닌 모습이고, '예뻐졌네'는 약간 비뚤어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주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 잘됐네'는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료형 말로 부드럽게 칭찬해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말해줍니다.



'안 돼'는 깨끗한 결정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든 맥이 빠질 것입니다. 대자연의 섭리에는 '안 돼'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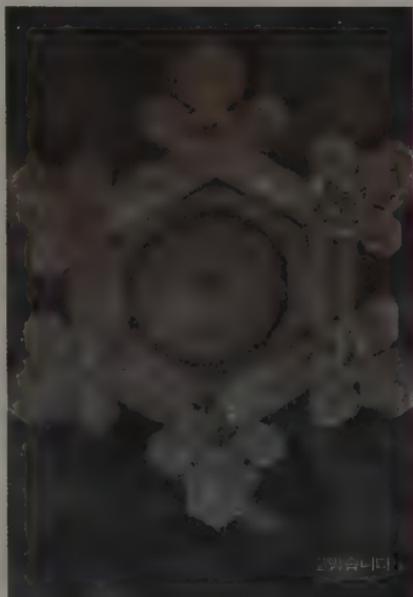
'좋아'는 기쁘게 마음을 활짝 연 듯한 느낌이고, '싫어'는 닫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속이 빈 것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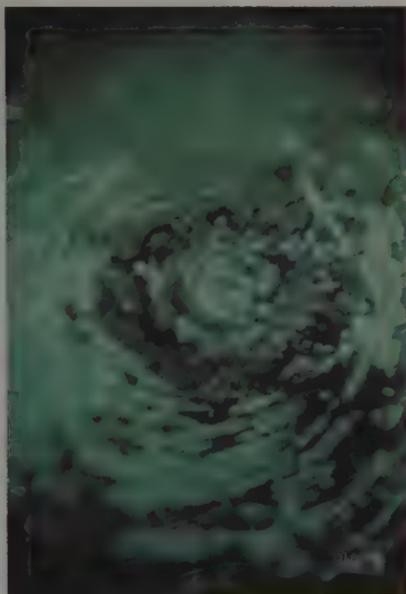
'힉'은 독특하면서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힉만으로는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기력'은 '싫어'와 비슷하게 에너지를 빼앗겨 구멍이 뚫려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힘이 생깁니다. 다른 것과 같은 배율로는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커서 배율을 줄여 겨우 전체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와 망원

1권에서 소개한 두 말을 동시에 보여주자 희미한 육각형 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쪽이 힘이 더 셴을 말해줍니다.



1권에 이은 '고맙습니다' 시리즈입니다. 말레이어가 참 독특합니다. 어원이 각기 달라서인지 한결같이 개성적인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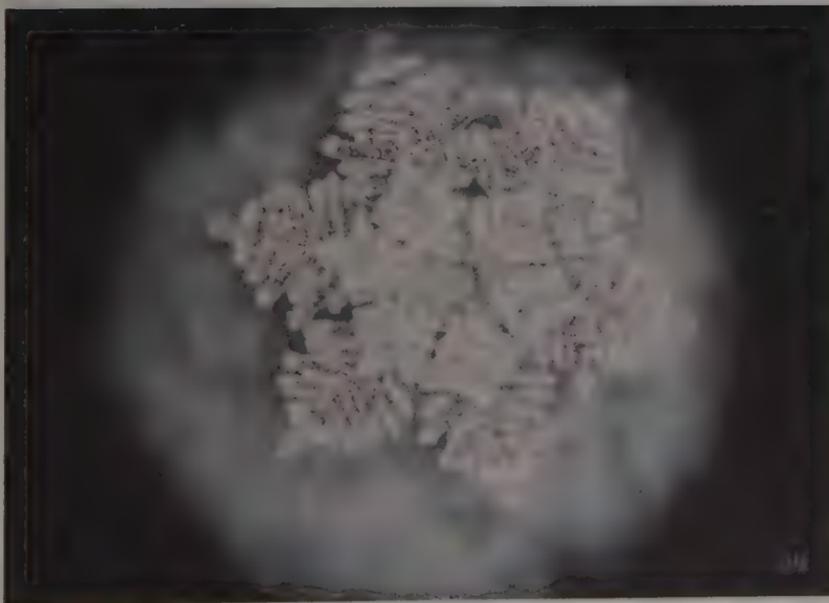


'전쟁'은 미국에서 9.11테러가 일어나기 두 달 전에 찍은 것인데, 제트기가 내리꽂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평화'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손을 맞잡은 듯이 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시

미국에서 일어난, 세계를 뒤흔든 9.11테러. 그 말을 보여준 물의 결정을 찍은 사진입니다. 악몽과도 같은 그날의 풍경을 그대로 비쳐내는 것 같습니다.



'공존'은 두 개의 결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듯한 모습입니다. '경쟁'은 놀랍게도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른 건전한 경쟁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커다랗고 시원스런 결정입니다.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결정입니다.



복의 신



가난의 신

'복의 신'은 둥그렇고 풍성한 느낌을 주고, '가난의 신'은 끝이 날카롭습니다. 너무 모
나게 살면 복이 도망친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한쪽은 달래고 한쪽은 어리광을 부리는 관계가 좋다는 말이 아닐까요? 때로 역할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나는 어리광을 부리는 쪽입니다만...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습니다. 따스한 향기가 풍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인스턴트식품은….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지나칠수록 균형을 잃고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5장에서 상세히 다룰 생각입니다만, 미래의 자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마(麻)입니다.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될 수 있는 이 식물은 그 파동도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파고드는 치유의 멜로디

치유효과를 가진 아름다운 음악을 물에 들려주면 어떤 결정이 나타날까요?



치유 음악을 탐구하는 엘런 루빅의 피아노 곡을 들려주면, 섬세하게 빛나는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치유효과가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음악에 담긴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원곡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흘러나오는 화사한 기쁨을 표현한 행진곡입니다. 그 곡조에 잘 어울리는 활
작 편 꽃 같은 결정입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신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백그라운드 (몽키레)



시라사테 (치고이.바이젠)

19세기 후반에 활약한 두 명의 작곡가. 곡은 전혀 다르지만 모두 개성적이고 눈부시게 빛나는 걸정을 보여줍니다. 치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도비치 (도나우 강의 선물경)》



《아비도비치 (도나우 강의 선물경)》

오스트리아의 빈Wien 도심지를 흐르는 도나우 강. 이 강의 흐름을 음악으로 표현한 왈츠 두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균형 잡힌 싱싱한 느낌을 주는 결정입니다.



알비노니 <아다지오>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는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입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잘 정돈된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에델바이스'는 독일어로 '고귀한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명하고 하얀 결정입니다. 한가운데는 유리거울 같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미국에서 태어난 명곡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 그런지 장엄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켈트의 영혼을 노래하는 아일랜드 여가수 엔야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흐트러짐 하나 없는 순백의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전통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잘 정돈된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금쪽의 음색이 서로 겹치는 모습이나 아악雅樂의 질서정연한 느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74년 〈학구〉



1974년 〈푸른 소나무〉

일본의 전통 노래입니다. 〈학구〉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어 참 재미있습니다. 〈푸른 소나무〉는 유곽에서 유녀遊女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행복’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지요? 좋아하는 여자와 데이트하는 장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려운 거래를 성사시키고 난 휴일, 공원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마도 다들 서로 다른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에 대한 제 나름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정말 뼈딱한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행복’에 파장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라고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에 반해 무슨 일에도 비관적이고 나쁜 일만 생각하면 반드시 당신을 곤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파동이며, 파동의 법칙에 따라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행복의 파장을 발산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행복에 파장을 맞추라고? 대체 어떻게 맞추라는 거지?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

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행복한 느낌’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허망해합니다. 때로는 행복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다가, 자신의 행복이란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파도 같은 것임을 깨닫고 허무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딸은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당시 동베를린에 살고 있던 친구에게 들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만 해도 그것은 독일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해 있던 사람들말고는 도시가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도 생활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쪽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화려한 생활을 몰랐기 때문에 소박하게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벽이 무너지자 서쪽에서 많은 물건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볼 때마다 무슨 수를 쓰든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살 수 없었습니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만 쌓여갔습니다.

가난해도 물가가 싼던, 장벽이 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뜻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국가가 제멋대로 장벽을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벽의 붕괴와 동서 독일의 통합은 근대사에서 가장 근사한 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에 시달리고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저도 모르는 사 이 불행의 파동과 공명하게 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기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싼 물건이나 큰돈을 손에 쥐면 행복을 얻은 듯이 착각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강요해온 가치관일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넘쳐흐르는 광고들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그 방대한 정보들은 하나의 슬로건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걸 많이 사고, 많이 갖자.”

우리는 새로운 걸 산 뒤에도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이 구식이다, 새로운 기능이 더해진 신상품이 나왔다, 올해 유행할 색은 뭐다... 이런 식으로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가 돌아감

니다. 결국 집에는 거의 쓰지도 않는 전자제품과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회는 이런 쳇바퀴를 멈추게 하는 모든 행위를 터부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쳇바퀴는 다른 쳇바퀴와 연결되어 사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떻게든 그런 시스템에 얽혀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월감'이라는 마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남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등의 우월감. 우리는 그것으로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짐작 가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가지고 있는 이런 우월감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이 현대 사회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물질이나 돈을 모으는 것은 지구 자원의 흐름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생명에너지를 가뒀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이런 허구의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극히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입니다. 우리는 늘 흐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돈도 어떻게 벌 것인가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평생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져와 쓰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잘 순환시키고 있는지를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 또한 한정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우리가 궤도 수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류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행복을 찾는 일은 결국 자연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이야기인 마테를링크의 <파랑새>에 나오듯, 행복이란 내가 모를 어떤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 안에 들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보람을 느끼고 늘 자기 일과 삶에 몰두할 것... 어린 시절의 우리는 그러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그런 미

덕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랍을 열 열쇠를 어디에 둔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할 때나 놀 때나 연애를 할 때나, 두근거리리는 가슴으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인생이 바뀌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몸이 활기를 되찾아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낄 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모양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보람요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코미디를 보게 하여 크게 웃도록 만들기도 하고, 연설도 하게 하며, 등산도 하게 하여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세포 덩어리가 작아지고 재발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가슴 두근거림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의학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활기찬 파동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또한 가슴 두근거림은 우리의 여러 능력을 키워줍니다. 누구든 좋아하는 일에는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영 컨설턴트로서 3천 개 회사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후나이 종합연구소'의 후나이 유키오船井幸雄 씨는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그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장점신전법長點伸展法'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개인의 단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장점을 발휘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단점은 개선된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팔리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팔리지 않는 물건 중에서도 약간이나마 팔리는 물건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옷가게에서 원피스가 잘 팔리면 원피스를 많이 가져다두어야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가장 잘 팔리는 것' '가장 잘 뺏어나가는 것' '효율이 높은 것' '잘하는 분야'에 주목하여 그 상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곧 그 사람이 가장 가슴 두근거리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기서 문득 하이포니카 농법(수경재배법)이 떠오릅니다. 이 기술을 쓰면 토마토 한 줄기에서 무려 1만 개의 토마토 열매를 따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히 말하면, 토마토가 마음껏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식물은 흙에 뿌리는 내리는데, 하이포니카 농법에서는 영양분을 가득 넣은 물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흙에선 뿌리가 뺏어나가는 데에 여러 저항을 받는 반면 물에선 마음껏 뺏어나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뺏어나가고 싶은 쪽으로 마음껏 뿌리를 뺏음으로써 토마토는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모두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하이포니카 농법을 개발한 노자와 시게오野澤重雄씨의 실험농장을 방문하여 하이포니카 농법으로 키우고 있는 토마토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한창 자라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칭찬해주어야 합니다.

‘잘했어’라는 말을 해주면 표정이나 행동이 밝아지고 재능도 마음껏 꽃피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물 결정입니다.

‘어서 해’라는 글자를 물에게 보여주면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지 못합니다. ‘망할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도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은 ‘안 돼’입니다. 이런 말들을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같이 해보자’ ‘좋아해’ ‘예뻐’ ‘잘했어’..., 되도록이면 이런 아름답고 따스한 말을 건네도록 해야 합니다. 몸속의 물이 깨끗한 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늘 상냥하고 따스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누구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1권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개의 병에 밥을 넣고, 하나에는 ‘고맙습니다’는 말을 하고, 다른 하나에는 ‘망할 놈’이라는 말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는 말을 한 밥은 발효하여 좋은 향기를 내고, ‘망할 놈’이라고 말한 밥은 썩어 검게 변하고 맵니다. 그중 가장 부패가 심한 것은 무시한 밥인데, 악취가 너무 심해 코를 갖다대

기도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 실험에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뒤, 이 병 세 개를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 가지고 갔습니다(이 실험을 해주신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얼마 뒤 세 개의 병 모두 ‘고맙습니다’는 말을 들려주었을 때와 똑같이 달콤한 발효 냄새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썩은 밥이라 해도 다시 눈길을 주고 말을 걸면 소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몸에 병이 드는 것은 활성산소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전하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질병이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일본 홀리스틱holistic 의학협회 이사로 계신 데라야마 신이치로 寺山心一翁 씨는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에 딸기 신장암에 걸리고 말았는데, 매일 아침 아파트 옥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사이 어느덧 암이 없어지고 마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데라야마 씨는 너무도 찬란한 아침 햇살을 보는 사이에 모든 생명이 그 빛으로 살아 숨쉰다는 것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암에 걸려서도 낙약하게 도피하지 않고 내면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속삭임으로써 세포들이 소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을 거는 행위가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는 상상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습니다.

열 살 난 한 소녀가 해바라기를 키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해바라기 씨앗을 넣은 두 개의 봉투와 화분, 물을 넣은 페트병에 각기 ‘고맙습니다’와 ‘망할 놈’이라고 적고,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씨앗을 뿌려 키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맙습니다’라고 쓴 쪽의 해바라기는 윤기가 흐르는 둥그런 잎사귀를 달고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망할 놈’이라고 쓴 해바라기는 잎도 거칠고 쭈글쭈글한 게 키도 많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기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고맙습니다’ 쪽은 섬유질이 촘촘히 형성된 반면, ‘망할 놈’ 쪽은 섬유질이 거칠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식물도 자신의 뜻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말에 따라 이렇게 식물의 성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한 소녀의 어머니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해바라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우주의 모든 것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스위치라고 생각

하면 어떨까요? 또는 어느 곳으로도 날아가서 스위치를 바꿀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뿐입니다. 말은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무엇이 아닐까요?

파동은 순간적으로 전달됩니다. 말이나 생각도 파동과 같아서 발설되는 순간 어느 곳으로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연의 일치나 저절로 뭔가를 깨닫는 체험을 합니다.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득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잠시 후 그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의 파동이 일으키는 현상일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병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찍어보니, 도쿄의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한 때문인지 깨끗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국 각지에 사는 500명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특정한 시간에 일제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기분을 가득 채우고 ‘책상 위의 수돗물이 깨끗해졌다’고 생

각한 다음, ‘고맙습니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렇게 한 물의 결정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평범한 수돗물이 깨끗한 물로 바뀐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500명의 마음과 말이 한순간 물에 전해진 것입니다.

파동은 시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일어난 한 생각은 늘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이미 우리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행복이 무엇인지 파동의 관점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 _ 행복뿐만 삶은 있을 수 없다. 살아 있는 한 불행은 찾아온다.
- _ 불행이란 행복으로 가는 여정이다.

‘행복’과 ‘불행’, 이 두 가지 말을 물에 보여주고 결정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행복은 말 그대로 예쁜 장식이 달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지로 만들어 끼고 다니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행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제대로 결정도 이루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반쯤 육각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있는 힘을 다해 결정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불행이란 행복과 반대된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이루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재앙과 복은 꼬인 새끼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무얼 하든 잘 풀리지 않는 어두운 시기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파도와도 같습니다. 파도는 상하운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풀리기만을 바랍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에는 반드시 그 이면이 있는 법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데이트 장소나 돈, 시간 조정 같은 문제로 골치 아픈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기라도 한 다음에는 차라리 혼자인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멋진 고급차를 샀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차를 몰 때마다 혹시 흠이 나지 않을까 늘 조바심을 내야 하는 단점도 많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전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3차원 세계(말하자면 음과 양이 있는 세계)를 살아가는 자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을 애타게 바라며 살아갈까요? 개나 고양이는 먹이나 편한 잠자리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인간처럼 행복을 찾아 고통을 이겨내며 모질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경제학자 라비 바트라 박사는 나와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 끝없이 행복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무한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부와 명성 또는 일시적 쾌락 등 유한하고 끝없이 변하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고 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조차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 합니다. 그런 욕망은 아무리 충족시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유한한 것 속에서 무한의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존재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유한합니다. 또는 '제행무상'이라는 말 그대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런 존재들로 행복을 찾는 이상, 마음은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넘치는 욕망은 인간을 고양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인류는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문명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부추기는 데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속에 빠져들면 욕망은 새로운 욕망을 낳고, 아무리 해도 만족할 수 없는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욕망으로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는 행복을 발견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감사’의 말을 보여준 물은 이 세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이런 시대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감사와 사랑은 그 비율이 2 대 1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물의 분자식 ‘H₂O’처럼.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아무런 불편 없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데에 감사해야 합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받고, 솔직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행복의 파장과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현실생활에서도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이 연주하는 치유의 멜로디 2

만일 당신이 지금 어떤 일로 낙담하고 있거나, 일상생활에 피로를 느끼거나, 남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아픔을 느낀다면, 강이 흐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물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연못이나 강으로 걸어가 햇살을 반사하며 찰랑거리는 수면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비가 내린 날이라면 아스팔트에 떨어져 사방으로 퍼져가는 빗방울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대야에 담긴 물이 창으로 비쳐든 햇살을 받아 기하학적인 문양을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이 다채로운 빗기둥을 만들며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은, 그런 당신을 다른 세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정화되어 원래의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잠시 자신이 흐르는 존재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물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 치유해줍니다. 존재란 흐르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당신 몸속의 물은 흐르고 싶어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흘러야 합니다. 마음이 흐르게 되면 몸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안팎이 한 덩어리입니다.

만일 과거에 당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해도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더 자유롭게 미래를 향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연의 아픔을 잊지 못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란 강의 흐름이 당신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멋진 세계로 이끌어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주는 매 순간 멋진 세상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해둔 그것을 언제든 손에 넣으면 그만입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이고 통과해가는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필요 이상으로 한 가지 일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용서하는 것, 믿는 것... 인생의 진정한 모습에 귀를 기울이면 몸속을 흐르는 깨끗한 물의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 치유의 멜로디입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물은 쉽 없이 대자연을 흘러가는 물과 하나

가 되고, 나아가 우주가 연주하는 생명의 리듬으로 이어집니다.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달을, 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왜냐면 달이 지구에 있는 물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된 '농사력'에는 '달의 성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를 12성좌로 나누는 태양의 성좌와 비슷하게, 한 달에 12성좌를 적용합니다. 2~3일이 하나의 성좌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농업을 비롯하여 서민의 일상생활이 달의 주기에 따라 꾸러져 왔음을 말해줍니다.

달은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바닷물의 움직임을 활성화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70퍼센트나 차지하는 물도 달의 영향을 받습니다.

굴은 달의 인력을 감지하여 찬물때에 입을 엽니다. 성계의 생식 주기는 달의 주기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바다거북이 해변에 올라와 알을 낳을 때가 대체로 보름달이 뜰 때인 것도 그냥 밝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달 밝은 밤에는 사람의 출산율도 높다고 합니다. 옛날의 산파는 경험적으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달 밝은 밤에는 힘이 넘쳐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 에너지는 사람을 미치게 하기도 합니

다. 늑대인간이 변신하는 것도 보름달이 뜰 때입니다. 영어로 ‘미친’은 ‘lunatic’인데, 달에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의 주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여자의 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문명이 고대에 태음력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의 움직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인간은 몸속 물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자연의 맥박을 들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대인이 잃어버린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마야인들이 사용했던 ‘13개월 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달력을 만들어 세계에 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 아그에이아스와 로이딘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인류가 마야력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자연의 리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므로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달력에선 7월 26일에 새해가 시작합니다. 달의 주기가 28일이므로, 한 해 365일을 28로 나누면 열세 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이 하루를 마야력에서는 ‘시간을 벗어난 날’로 삼습니다. 이날에는 모든 일을 쉬고, 삼라만상을 향해 기도를 올

리며, 행복과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춤추고 웃으며 보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달의 주기에 맞춰 우주와 동시에 살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대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주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끼며 살아감을 뜻합니다.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힘을 되찾을 때, 우리는 모두 단순하고 자연스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빠르게 진화하여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상처 입고 피폐해졌기 때문 아닐까요?

우주에 흐르는 멜로디를 듣고 그 리듬을 몸속에서 느낄 때 몸속의 물도 아름다운 결정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유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명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앨런 루빅이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루빅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텔레비전 광고나 디지털영화의 음악을 제작하고 레코드회사도 경영하며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은 참 맑고 투명하여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루빅은 젊은 시절 체험을 통해 음악이란 '치유'임을 확신하고, 그 뒤로 치유를 음악활동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 살 때부터 오르간을 쳤고, 아홉 살부터는 피아노에 몰두하여 작곡과 연주를 시작한, 재능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 사고를 당했습니다. 체육수업을 받다가 오른쪽 팔꿈치 아래 신경이 끊어져 마비된 것입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루빅은 피아노도 못 치고 손가락 근육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음악에 몰두했던 그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비탄에 빠졌고, 음악가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번이나 피아니스트의 길을 단념하자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아노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손가락에 실어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하나의 멜로디가 되어 허공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루빅은 자신의 손가락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가락에 흐르는 생명에너지를 실감하는 순간, 피아노의 울림과 손가락이 공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빅의 손가락은 그때부터

놀라운 회복을 보이더니, 이전보다 더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루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6, 7년 전입니다. 내가 즐겨 사용하는 파동측정기를 개발한 과학자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학자의 도움으로 루빅이 파동을 음악으로 표현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음악이었습니다. 그 음악을 들려주고 물의 결정을 찍어보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빅에게 먼저 곡을 만들게 하여 그것을 물에 들려주었습니다. 그 뒤 결정을 찍어 어떤 치유의 파동을 가졌는지 기계로 측정했습니다. 또 치유를 위한 음악으로서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결정 사진을 루빅에게 보여주자, 모든 결정이 곡을 만들 때 떠올랐던 이미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치유 파동'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잘 정돈된 결정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루빅은 '음악은 치유'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신념으로 연주하는 참으로 드문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남은 작곡가들이

만든 곡이나 이름난 재즈 연주, 세계 각지에 전하는 각 나라의 전통음악도 제각기 독자적인 치유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들려주면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줄 그런 음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클래식 명곡을 들려주고서 결정 사진을 찍고, 나아가 그것을 파동측정기로 측정하니 다음과 같은 감정이나 몸에 대한 치유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를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몰다우〉(스메타나) - 심한 짜증 - 림프의 흐름 촉진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슈트라우스) - 인내력 부족 - 중추신경 활성화

〈로엔그린〉(바그너) - 자기연민 - 관절 통증 완화

〈백조의 호수〉(차이코프스키) - 강박관념 - 관절 움직임 유연화

〈목신의 오후 전주곡〉(드뷔시) - 환경 스트레스 - 요통 개선과 예방

좋은 음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클래식 명곡은 강한 치유력을 가집니다. 그런 음악을 들은 물은 힘에 넘치며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줍니다.

음악이란 그것이 태어난 시대와 지역의 공기가 응축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왜 뉴욕에서 모던재즈가 생겨났을까요? 이

것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즈는 원래 흑인들이 연주하던 블루스가 발전한 것인데,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브라스밴드brass band의 음악과 결합해 밝고 활달한 뉴올리언스 재즈가 생겨났습니다. 당시의 재즈는 아주 단순한 화음이었습니다.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삼화음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윽고 재즈의 중심지는 뉴욕으로 옮겨갔고, 194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모던재즈라는 새로운 재즈가 등장합니다.

모던재즈에 이르면 화음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도와 레 또는 도와 시처럼 보통 때라면 충돌했을 음을 결합하여 여러 다른 화음을 만들면 독특하면서도 근대적이고 전위적인 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던재즈 특유의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뉴욕은 인종 박람회장이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미국에게 소련 공산주의라는 적이 등장했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지는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려면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삼화음이 그때까지의 단순한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것이었다면, 모던재즈의 화음은 더욱 복잡해진 인간관계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제각기 그 시대의 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해야 할 스트레스가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 주파수에 맞는 음악이 만들어져 왔음을 말해줍니다. 곧 음악이란 예술이면서 동시에 치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미래는 파동의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병에 걸리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각 증상에 맞는 치유효과를 지닌 음반을 처방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파동의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의학은 질병에 걸리면 그것을 낮게 하는 효과가 있는 약을 주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동의학은 눈에 보이는 증상의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파동 말입니다.

모든 증상은 독자적인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의 파동에 주파수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주파수를 알면, 그 파동과 정반대의 파형波形을 일으키면 됩니

다. 그렇게 하면 질병의 파동이 사라지고 증상도 사라집니다.

파동의학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진정한 원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치유하려 합니다.

간이 나빠진 사람이라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파장은 간을 구성하는 세포의 소립자가 지닌 파장과 같아서 서로 동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슬픔'은 혈액에 동조하여 백혈병이나 지주막하출혈(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일으키기 쉽고, '초조감'은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혀 통증이나 어깨결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동의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하나의 우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60조에 이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 다른 세포들과 멋진 조화를 이루어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몸의 장기, 신경, 세포는 각자 고유의 진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리로 말하자면, 각자 다른 음이면서도 전체가 모여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어딘가 음이 뒤틀려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음이 뒤틀리면 전체 균형이 깨집니다.

치과의사 무라즈 가즈마사村津和正 씨는 '이도 장기臟器다'는

독특한 관점으로 치료를 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 세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먹을 쥐 수 없었던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많은 이 치료 흔적 가운데 윗니에 덮어씌운 몇 개의 금속을 벗겨내고 잇바디를 교정했더니, 주먹을 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통증을 느껴왔던 허리와 발까지 나았습니다.

이는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가 잘못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몸 전체를 조절하는 중추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무라즈 씨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의학은 몸을 여러 부품으로 조립된 기계로 파악하여, 나쁜 곳만 치료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상이 사라졌다 해도 다른 부분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작용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파동의학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치유한다’는 개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파동의학은 미래를 여는 멋진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에 생긴 이론이 아닙니다. 그 원리는 고대에 널리 알려져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왔습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가 다시 발견되어 실용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과동의학의 문을 열어준 것이 ‘플라워 에센스flower essence’입니다. 플라워 에센스란 꽃의 에너지와 과동을 물에 전사轉寫하고 사람이 그 물을 복용함으로써 몸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물에 전사된 것은 과동뿐입니다. 꽃이 지닌 성분이 물에 녹아든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냥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플라워 에센스는 1930년대 말 영국의 세균학자 에드워드 버치 박사에 의해 창안되었습니다. 버치 박사가 창안한 에센스는 ‘버치 레미디’로 세계에 알려졌고,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나름대로 특징을 살린 플라워 에센스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에 잘 알려진 것은 ‘핀드혼 플라워 에센스’일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북쪽 끝 네스 호 가까운 곳에 ‘핀드혼 findhorn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인데, 다양한 이벤트, 워크숍 등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핀드혼에서 플라워 에센스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마리온 리 씨입니다. 이분은 그 자신이 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

성입니다. 몇 년 전에 그녀가 일본에 왔을 때, 내가 주재하는 잡지와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신성한 사명을 다하는 도구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혼과 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이나 감정의 뒤틀림, 공포와 탄식, 슬픔, 의혹, 성급함, 나약함, 무관심 따위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플라워 에센스는 이러한 영역에 효과적인 작용을 합니다.”

플라워 에센스를 만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날씨가 좋은 날 아침, 자연에서 활짝 핀 꽃을 따니다. 잎을 따서 그 잎으로 꽃을 감싸듯 하여 꽃이 손에 닿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릇에 담은 신선한 샘물에 띄우고 햇볕을 쬐니다. 꽃의 에센스는 이렇게 하여 물에 전사됩니다. 네 시간 정도 지난 뒤에 이 물을 보존용 브랜드로 희석합니다.

이것으로 플라워 에센스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플라워 에센스를 작은 유리병에 넣어 그것을 다시 물로 희석한 뒤 혀 밑에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 힘은 몸과 마음에 은근히 작용합니다. 물론 약과 같은 부작용은 없습니다.

인도에 전하는 베다 철학에서는 사람 몸에 일곱 개의 차크라 센

터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플라워 에센스는 이 차크라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꽃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핀드혼에 많이 피는 가시금작화gorse는 기쁨과 정열의 파동을 가지고 있어서 무기력, 신경쇠약, 면역저하에 효과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앵초scottish primrose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공포를 느낄 때 조화와 안정을 되찾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벚꽃cherry blossom도 에센스가 될 수 있습니다. 벚꽃은 내면의 길로 이어지는 회로를 회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짙어지고 살아온 부정적 사고의 유형이나 열등감, 죄의식 따위에 효과가 있고, 깊은 배려, 친절함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 꽃들로 플라워 에센스를 만들어 그 물을 채취해 결정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꽃이 활짝 핀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동으로 병이 낫고 건강해졌다 해서 그런 효과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화학적 분석이나 의학적 검사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민간요법 가운데 파동의 원리를 근본으로 하는 치료법이 많습니다.

파동수波動수가 사람 몸을 치유해준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동종요법homeopathy입니다.

어떤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독을 10의 10제곱에서 600제곱, 또는 그 이상의 배율로 물에 희석시켜 마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증상을 없애주는 약이 됩니다.

그 약은 같은 증상을 가진 다른 질병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옷이 오른 피부는 빨갱게 부어오르는데, 옷을 이용한 동종요법 약은 것처럼 빨갱게 부어오르는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상처나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를 다듬다가 눈물이나 콧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파의 동종요법 약은 감기나 비염, 알레르기로 눈물이나 콧물을 흘리는 증상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동종요법에서 말하는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말라리아의 특효약인 키니에quinine를 개발한 독일의 의사이자 약사인 사무엘 하네만은 키나나무의 껍질을 복용하면 말라리아와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네만이 동종요법 이론을 발표한 것은 19세기 초의 일입니다. 그 뒤로 동종요법은 유럽과 미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동종요법은 그때까지의 의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이미 400개가 넘는 동종요법 진료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1830년에 왕실에서 그 요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의사 다섯 명에 하나가 동종요법 전문의일 정도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타도 동종요법”을 슬로건으로 하는 의학협회가 생겨나는 등 의사와 제약회사의 탄압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정말 좋은 것일수록 탄압을 받는 역사의 예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무대에서 사라졌던 동종요법이 지금에 이르러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동종요법 의학학교가 30개나 넘고, 국영 동종요법 전문병원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의 10퍼센트가 동종요법을 치료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동종요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 일본동종요법의학협회가 꾸려졌고,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요법은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대과학은 동종요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의·과학 잡지에도 몇 번이나 그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실렸지만, 한결같이 ‘믿기 힘든 이론’이라는 단서를 달고 실려야 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동종요법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정보를 읽고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학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상식’은 과학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류큐 대학의 히가 데루오比嘉照夫 교수는 유효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의 개발자로, 그 보급을 위해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유효미생물군이란 사람과 환경에 이로운 미생물을 모아 액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농약 대신 쓰면 질 좋은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면 마실 수 있는 물로 재생시킬 수 있고, 최근에는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

하는 다이옥신의 처리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히가 교수는 유효미생물군을 연구할 때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유효미생물군을 넣어 사용한 세라믹 용기는 사용한 뒤에 아무리 씻어도 유효미생물군의 성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열로 살균처리를 해보았지만 유효미생물군의 성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답니다.

히가 교수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 세라믹에 유효미생물군의 성질을 전사하여 구워낸 ‘EM세라믹’이란 것을 개발했습니다. 700℃의 고온에서도 죽지 않고 활동하는 미생물이 있고, 그 성질을 세라믹에 심어두면 절대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뒤집는 사고방식입니다. EM세라믹이 실용화되어 생활, 환경, 농업 등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동기술의 실용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전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 분자가 자기磁氣처럼 정보를 기록합니다. 파동에는 생명에 이로운 것, 이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파동이라 해도 그 매개자인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올바른 전달되지 못합니다.”

자연계에는 소생과 붕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히가 교수

는 말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냉장고에 넣지 않고 내버려두면 썩어서 냄새를 풍깁니다. 이것이 바로 붕괴하는 방향입니다. 거기에 비해 소생의 방향은 ‘발효’입니다. 콩이 발효되면 된장이 됩니다. 된장, 간장, 치즈, 술 같은 것들이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발효된 것은 결코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생물이 일으키는 현상인데,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소생의 방향으로 이끄는 미생물만을 모은 것이 바로 유효미생물군입니다.

유효미생물군을 농업에 활용하면 토양에 든 미생물의 힘을 높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를 안 쓰고도 질 좋은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 해가 없고 땅을 황폐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에 비해 농약이나 비료는 ‘붕괴형’의 대표입니다. 물론 농약을 치면 벌레가 피지 않고, 비료를 치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곤충이나 흙 속의 미생물까지 죽고 맙니다. 잠시 동안은 괜찮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땅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농업을 계속해가면 거의 모든 땅이 붕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순환을 끊는 일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소생형’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모두, 목숨을

다한 뒤에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흙이 되고 식물의 비료가 됩니다. 그 흐름에서 자연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자연은 생명의 순환을 형성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붕괴형인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의 쾌락이나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니 많은 것들이 일회용으로 버려집니다. 거기에 ‘순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지구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붕괴형 인간에서 소생형 인간으로.”

이것을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 조약돌처럼 떠 있는 작은 섬들은 일본의 본래 모습을 간직한 곳입니다. 세토나이카이를 깨끗이 하기 위해 1998년부터 그 연안 도시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현의 작은 섬, 나이카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유효 미생물균을 만들어 가정에 배포하고, 섬사람들은 각 가정의 배수

구를 통해 이 유효미생물군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염된 개흙이 사라지고 물고기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던 낙지도 돌아오고 조개도 많이 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특산물인 김을 가공할 때 나온 물 처리에도 유효미생물군을 사용하면서부터 배수로의 개흙이 사라지고 김 맛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시도는 근처의 아키쓰로 퍼져나갔습니다. 공공기관이 솔루션하여 유효미생물군을 무료로 보급하자 그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로에서 개흙이 사라지고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하구에는 조개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키쓰의 특산물은 굴입니다. 그곳에서는 양식장 바닷물의 질을 높여 굴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 유효미생물군을 흙에 섞어 만든 '유효미생물떡'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세토나이카이 연안의 도시와 마을, 기업, 학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손을 잡고 2002년에 '세토나이카이 환경회의'를 발족시켰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오미시마에서는 '세토나이카이 환경포럼' '세토나이카이 유효미생물군 회의'를 열어 환경정화를 테마로 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세토나이카이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노력은 소생형, 그리고 환

경형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치유란 사람의 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지나 강, 바다, 나아가 이 지구에 대한 치유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구의 치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원을 순환시키고, 깨끗한 물을 순환시키고, 생명을 순환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결정의 별,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강의 모험, 물의 여행 3

물은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1권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의 루이스 프랭크 교수가 주장한 학설입니다.

지금도 지구에는 1분에 20개가 넘는 작은 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100톤도 넘는 물과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 얼음이 대기권에 이르러 구름을 만들고 비가 되어 떨어져 바다를 만듭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은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우주에서 온 것입니다. 인류가 우주를 동경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릅니다.

누구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맑은 날, 바닥에 드러누워 별을 쳐다보면 왠지 향수를 느낍니다. 마음은 수만 년, 수억 년의 시간 너머로 날아갑니다. 어느새 당신의 마음도 우주공간에 동실 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의 별이 된 듯한 기분 말입니다.

1961년 소련의 가가린 소령이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뒤로(그는 “지구는 푸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뒤로(“한 사람에게서는 작은 한 걸음이지

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한 걸음이다”) 인류의 우주에 대한 동경은 더욱 현실감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구에서 가깝고 사람이 내려설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는 화성에 유인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는 화성에 유인비행을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은 물입니다.

우주를 여행하면 인간의 몸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뼈와 근육의 퇴화, 좁은 우주선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압박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우주방사선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주공간에는 우주 저 멀리서 쏟아져 내리는 방사선 외에도 태양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폭발인 플레어(flare)에 의한 방사선이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을 관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난을 갈 수 있는 안전한 방을 마련해두는 일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튼튼한 방을.

미국항공우주국이 구상하는 이런 방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식수로 쓰기 위해 신고 간 물이나 수분이 많은 식품을 기동처럼 생긴 상자에 넣어서 죽 늘어서게 하여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플레어가 발생하면 그것이 그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승무원들은 그 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것은 물이나 식료품을 방사선 차단물로 이용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우주선에서는 두꺼운 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우주선의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게를 줄이려면 우주선 안에 신고 가는 물의 양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구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하루 물 소비량은 80리터라고 합니다. 우주선에서는 하루에 3리터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주선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 때문에 우주선에서 물을 철저히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수나 세숫물도 재활용하고, 승무원이 흘리는 땀이나 오줌조차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주공간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활동할 때도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1년 5월, 미국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선 '화성 오디세이 Mars Odyssey'가 보낸 관측 데이터 분석 결과, 화성 표면 가까운

지하에 대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예전에 화성 표면에 물이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물을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화성은 지구처럼 푸른 별이 되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목적으로 한 조사와 계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1996년부터 미국항공우주국은 북극권에 있는 섬 데번에서 화성 이주를 상정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데번은 낮은 기온에 바위투성이 지대로 화성의 환경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화성의 생물 조사, 거주, 통신 등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이 시작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지구 환경 때문입니다. 온난화, 인구 증가, 식량문제, 환경오염, 그리고 물 부족...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린다는 말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너무도 심각한 것입니다.



상상 속의 우주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은 깊은 숲 속에 서 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뜹니다. 쓰러진 고목의 가지는 밝은 녹색의 이끼로 덮여 있고, 낙엽이 쌓여 폭신하고 부드러운 흙, 관목과 양치식물 등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서늘한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 켵니다. 숲의 향기….

저기에는 생명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새의 날갯짓 소리, 울음소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우리는 이 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이 별이 길러온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멋진 보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이끼 낀 바위 사이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작은 샘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그 물을 떠서 입에 머금어봅니다. 지구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은 땅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구의 가슴에 안겨 자라온 물. 그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잠시 그 물이 체험해온 세상에 대해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시다.

얼음 덩어리로 우주에서 날아온 물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 산꼭대기나 나무의 우듬지를 적실 때, 그 최초의 한 방울이 물의 아

기입니다.

거기서부터 파란만장한 물의 일생이 시작됩니다.

비로 내린 물은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물은 나뭇잎에 떨어져 대기로 증발되고 맙니다. 흠에 배어들어 식물의 뿌리에 흡수된 뒤 잎으로 가서 방출되는 물까지 고려하면 하늘에서 내린 물의 3분의 2는 대기로 돌아갑니다.

상록수 숲에서는 소나기가 내린 뒤 1헥타르당 10톤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간 물은 구름이 되거나 안개가 되어 나무들 사이를 떠돕니다.

안개가 된 물들은 다시 형태를 바꿉니다. 공기가 어느점 이하로 차가워지면 서리가 되어 잎이나 꽃에 하얗게 내립니다. 그리 춥지 않을 때는 지표면 가까이에서 식은 다음 이슬이 되어 풀잎에 맺힙니다.

꽃과 푸른 이파리 위에서 떼구루루 구르는 이슬방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명한 수정구슬 같은 이슬은 꽃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꽃잎 위를 굴러가는 요정입니다. 발랄한 생명이 넘치는 파란 이파리. 그 위에 맺힌 몇 방울의 이슬은 식물의 생명과 공명하고 있음에 틀림 없습니다.

한 방울의 이슬이 나무에서 얼굴을 내민 새싹으로 떨어져 잎 위를 한 번 굴렀다가 아래쪽에 앉은 개구리의 등 위로 떨어집니다. 아침의 숲에 들어가면 자연의 애정을 듬뿍 받은 그런 물의 요정들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은 개구리를 사랑하고, 파란 이파리를 사랑하며, 새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방울의 물도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으로 성장해가듯이, 이 땅에서 태어난 물의 아기도 대자연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비나 이슬이 되어 대지에 스며든 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일부는 식물의 뿌리에 흡수되어 다시 대기로 방출되지만, 그렇지 않은 물은 흙에 스며들어 오랜 세월 지하세계를 여행합니다.

물의 길은 지하에 수없이 뚫려 있는 비밀스런 터널입니다.

지상에서 태어나 자라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하에는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에서 생활하는 많은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가느다란 구멍입니다.

지렁이나 지네, 땅거미 같은 갑충의 유충, 벼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 또는 굴을 파고 사는 생쥐, 토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땅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은 그런 생물들에 의해 부드럽게 바스러져 가로로 세로로 구멍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터널들과 함께 모래나 조약돌 사이에 생기는 좁은 공간, 흙 속에 있던 얼음이 녹을 때 만들어지는 구멍이나 나무뿌리가 썩은 다음에 생긴 구멍, 흙이 메말라 갈라지거나 바위의 갈라진 틈 같은 길들을 따라 물은 지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땅속엔 모래나 점토, 암석 등이 여러 층으로 겹쳐 있습니다. 이러한 층 속으로 물은 스며들어갑니다. 스며드는 속도는 흙의 성질에 달려 있지만, 대체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1년에 겨우 30센티미터 남짓 움직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땅속에 스며든 물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감각으로 천천히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암반이나 점토에 다다른 물은 지하 세계를 흘러다닙니다. 바위의 경사나 형태에 따라 지상과 마찬가지로 지하의 강을 이루기도 하고, 호수를 이루기도 합니다.

흙에 스며들기 전에는 아기와도 같았던 물은 오랜 지하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수많은 정보가 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물은 그동안 통과해온 암반에 의해 성질이 결정됩니다. 사람도 유년기에 기본 성격이 형성되듯이 말입니다.

석회암을 통과한 물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합니다. 이처럼 미네랄 성분이 많은 물을 '경수硬水'라 합니다. 한편 점토나 화강암의 수로를 따라 흐른 물은 미네랄 농도가 낮기 때문에 '연수軟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지구에 대한 공부를 마친 물은 지상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흘러나옵니다. 그 흐름의 앞에 밝은 빛이 보입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바깥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이끼 낀 바위틈으로 흐르는 맑은 물, 조그만 샘, 당신이 두 손으로 퍼 올리는 그 물은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땅속을 오래 오래 여행을 했던 물입니다.

샘은 작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땅속으로 살짝 스며든 빗물이나 지표를 흘러가는 소량의 물을 끌어들이어 한 줄기 물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흐름은 지표면을 침식시켜, 보기에도 그럴싸한 수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개울입니다.

흐름은 더욱 기세를 올려 흙과 바위를 침식시키고 서서히 폭과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렇게 물은 강인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개울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갈색 흙을 무너뜨려 탁하고 거친 모습을 드러내는 개울도 있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처절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딱딱한 바위를 깎아내는 물도 있습니다.

물의 흐름은 놀라운 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만으로는 딱딱한 바위나 흙을 깎아낼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물과 함께 흘러가는 모래나 돌이 합니다. 그리하여 커다란 바위가 부서지고, 그럴 때마다 물은 더욱 기세를 올립니다.

흘러가는 사이에 강물은 수많은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류 쪽에서는 연어가 떼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슴, 곰, 다람쥐가 물을 마시거나 노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태풍에 쓰러진 고목이 물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윽고, 강은 평야에 이릅니다.

드넓은 대지 위로 강은 구불구불 흘러갑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것은 마치 거대한 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형태를 바꾸어갑니다. 쓸

려나간 흙과 돌은 넓은 강의 한 부분에 퇴적하여 삼각주를 만듭니다. 또한 언덕에서 흙과 모래를 깎아내리고, 그것을 모아 흘러가는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기도 합니다.

만일 몇 년의 흐름을 몇 초에 볼 수 있는 초저속카메라가 있어서 이 강의 흐름을 찍어본다면, 구불구불 몸을 뒤흔는 뱀의 모습이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런 강의 움직임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미국 미시시피 강의 경우 1년에 20미터나 강줄기가 이동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강이 흐름을 바꾼 다음에는 물이 싹고 온 토사나 진흙이 쌓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둑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홍수가 일어나 물이 둑을 무너뜨리면 주변의 평지에 토사가 넓게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강물이 범람한 땅은 비옥하여 옛날부터 농지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이집트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수는 자연재해지만 동시에 가장 영양이 많은 비옥한 흙을 가져다주는 하늘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강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여 모습을 바꾸어갑니다

다. 그것은 강이 늘 살아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도시로 들어서면 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리 위를 걸어가는 노인, 자전거를 타는 소녀, 강을 내려다보는 연인, 강변 공원에서 축구를 하는 소년들, 캐치볼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강은 부드러우면서도 평온한 눈길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봅니다.

강도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강폭이 넓어지면서 물의 기세도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이윽고 바다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강이 나른 흠과 모래는 조금씩 강바닥에 쌓여갑니다. 그것이 쌓이면 강바닥은 더 평평해지고 물의 흐름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바다로 흘러드는 그 순간부터 강은 흐름을 멈춥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떠나려온 흠과 모래는 모두 강의 하구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삼각주입니다. 갠지스 강, 미시시피 강, 아마존 강과 같은 거대한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지대는 흠과 모래로 막혀, 강은 빗자루나 혹은 그물처럼 수많은 갈래로 나누어져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쌓인 흠과 모래는 세월이 흐르면서 해안의 지형을 바꾸어갑니다. 삼각주 지역은 비옥한 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농토는 강이 만들어낸 삼각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은 여기에 이르러 인간에게 풍성한 선물을 남기고 바다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물의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다 속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과의 공동작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이제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윤회전생輪廻轉生, 물은 지상에서 수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그 드라마의 처음과 끝을 보여줍니다. 상상하기 힘들 만큼 오랜 시간 물은 지구 위를 순환합니다. 산꼭대기에서 깊은 바다 속까지 생명을 나르고, 그 생명들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물의 일생을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은 그냥 그대로 생명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결정 사진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강의 상류에서 하류를 따라가면서 그 결정을 찍어보았습니다. 또 자연풍경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꽃의 파동을 전사했을 때 물은 우리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요. 그 결정 속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마노 강을 따라 내려가 보았습니다

혼슈 최남단, 바다를 향해 툭 튀어나온 기이 반도. 구마노의 산들. 예부터 신이 사는 땅이라 했던 곳. 원시림 속을 흐르는 강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 결정을 찍어보았습니다.



신지슬에 쏟아지는 물



강으로 흘러드는 물

해발 1,800미터의 산. 그 등산로의 조릿대 앞에서 물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이윽고 샘물로 솟아올라 지상에 모습을 드러낸 물은 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덥에서 1킬로미터 흐른 눈



2킬로미터 흐른 눈

덥의 물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킬로미터만 흘러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강의 본류로 섞여들어 갑니다.

흐르는 강, 고인 물

모토아키 강이 흘러드는 아리아키 해의 이사하야 만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강 원류에서 간척 때까지의 물을 찍어보았습니다.



원류에서는 투명한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상류의 물은 윤곽이 뚜렷한, 감동적일 만큼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줍니다.



만으로 둘러둘기 직전



간척 예정지에 형성된 연못

하류로 갈수록 물은 탁하고 결정은 무너집니다. 간척을 위해 수문을 막아둔 땅의 연못 물은 보기에도 처참합니다. 고인 물은 죽고 맙니다.

강이 보여주는 세 가지 얼굴

후지 산이 보이는 대지를 흐르는 후지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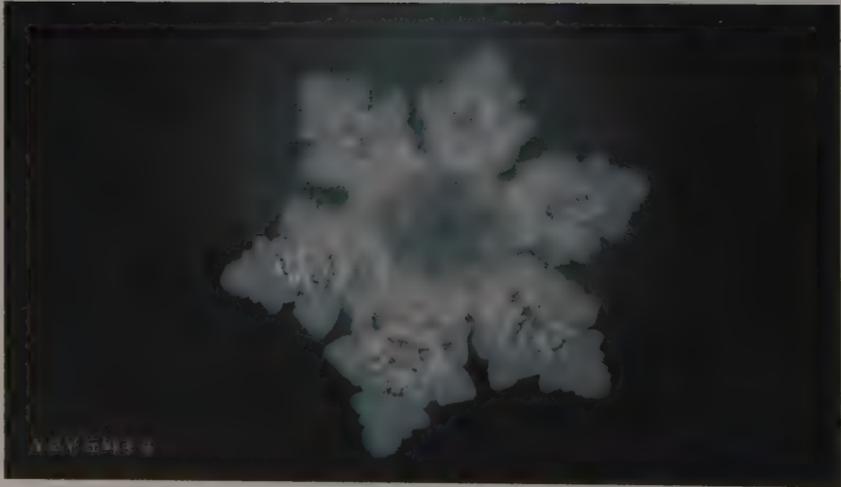
그 상류, 중류, 하류의 결정을 찍어보았습니다.



상류는 한가운데 진주를 박아넣은 듯한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중류는 주춧돌을 지나서 인지 결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류에 이르면 조금 정화되었는지 결정을 회복합니다.

일본의 물 몇 가지

용천수, 폭포수, 호수, 강... 자연과 도시의 물 차이가 참 재미있습니다.



도류의 폭포는 후지 강 가까이 있습니다. 정돈된 모습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도호쿠의 호수 도와다 호는 오염이 되었을 텐데 정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가타 반딧불이 마을의 물



도쿄 스미다 강

반딧불이 마을의 물은 이름 그대로 반딧불이 같은 작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미다 강은 도쿄의 대표적인 강입니다. 예전보다 좋아진 모습입니다.

자연풍경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꽃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결정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 다 꽃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결정입니다. 벚꽃을 본 물은 벚꽃 잎처럼 생겼습니다. 연꽃을 보여준 물은 기쁨에 넘치는 듯한 표정입니다. '불교'라는 말을 보여준 결정 사진과 비슷합니다.



푸른 풀밭 속에 나타난 한 마리 여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결정입니다. 왠지 조금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밤의 장막이 드리워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초승달에 나무 그림자. 결정 주변의 모습이 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단풍입니다. 사진의 이미지 그대로 물은 잎을 가득 매달고 있습니다. 지기 직전의 단풍잎처럼 보입니다.



야쿠시마의 삼나무 사진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결정입니다. 생명이 넘쳐 흐르는 듯한 분위기를 냅니다.

세계의 여러 종교가 보여준 모습

세계 5대 종교 이름을 물에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보여주었을까요?



불교에만 한가운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윤회전생, 내세로 이어지는 길을 나타내는 걸
까요? 형태는 좌우대칭으로 깨끗합니다.



주변에 달린 장식이 마치 크리스마스트리 같습니다. 섬세하고 반짝이는 형태는 중세의 교회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계율이 엄한 종교로 알려져 있지만 너무도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결정입니다. 결정이 겹쳐져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선명한 결정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윤곽이 뚜렷하고 엄격한 느낌을 줍니다. 깨끗한 결정입니다.



기하학적인 깨끗한 육각형입니다. 만화경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형태나 광채가 너무 멋진 결정입니다.

치유의 힘은 생명의 힘

환경을 정화하는 유효미생물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플라워 에센스나 아로마 오일이 어떻게 물을 바꾸는지 시험해보았습니다.



유효미생물군은 환경과 건강에 좋은 미생물을 모은 것입니다. 그것을 물에 희석하면 생명력 넘치는 결정을 보여줍니다.

핀드론 플라워 에센스



꽃의 파동을 전사한 에센스. 한결같이 꽃이 활짝 핀 듯한 깨끗한 결정을 보여줍니다.
섬세한 결정은 치유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매혹적인 결정입니다. 이 결정만 보고 있어도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로마 오일의 파동을 물에 전사했습니다



아로마서로피 오일의 파동을 파동전사기로 물에 전사했습니다. 원래의 꽃을 쫓 빼담은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희향의 아로마 오일을 전사한 것입니다. 꽃의 분위기와 형태를 멋들어지게 재현한 결정입니다. 마치 물속에 핀 꽃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기도의 힘은 세계를 바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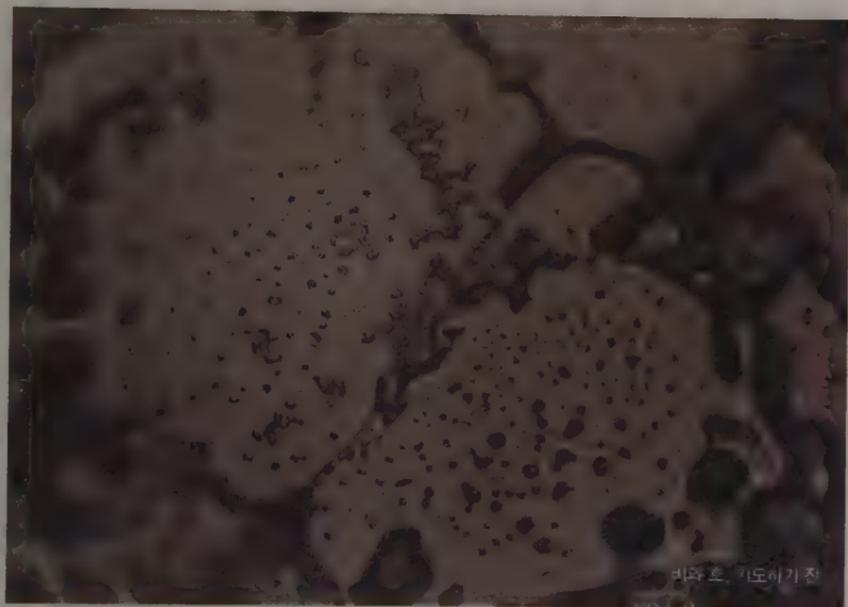
물과 세계를 향해 기도를 올리면 물 결정은 극적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런 실례를 모아보았습니다.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500명이 동시에 물에 사랑의 기운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수돗물이 이런 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어디로든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시바 신을 찬양하는 기도의 말입니다. 마치 만다라처럼 질서정연한 모습인데, 신성을 느끼게 하는 멋진 결정입니다.



비와 호, 기도하기 전



비와 호, 기도한 후

비와 호에 약 350명이 모여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러자 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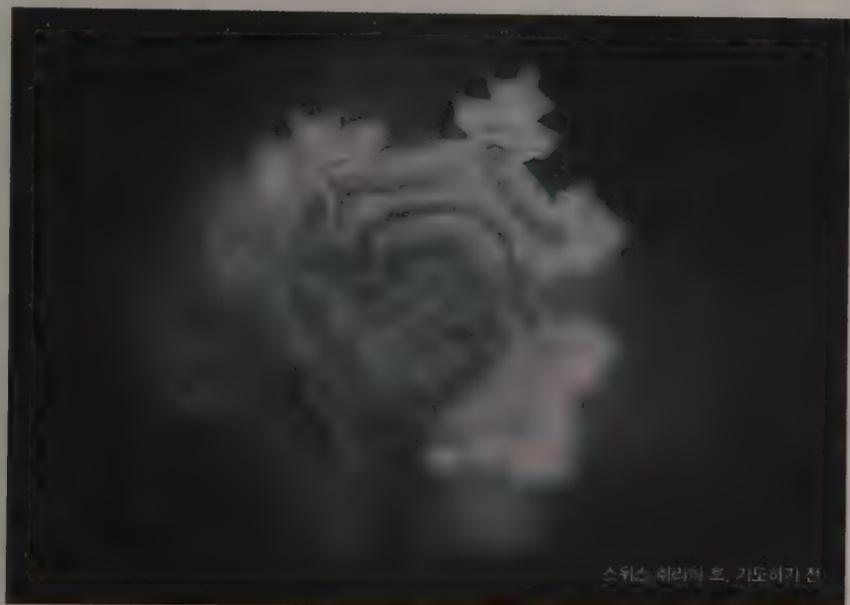


스위스 루체른: 기도하기 전



스위스 루체른: 기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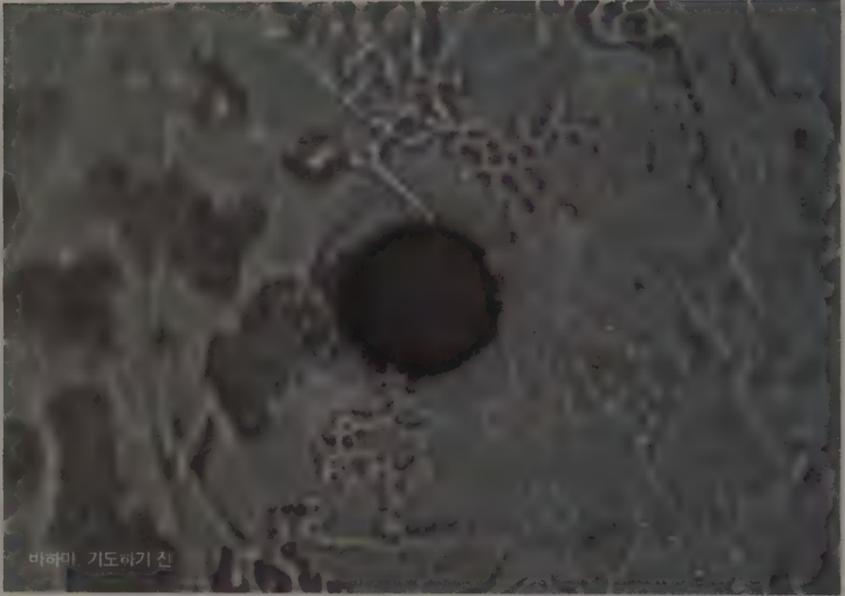
스위스 루체른에서 호수를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하기 전후의 물이 전혀 다른 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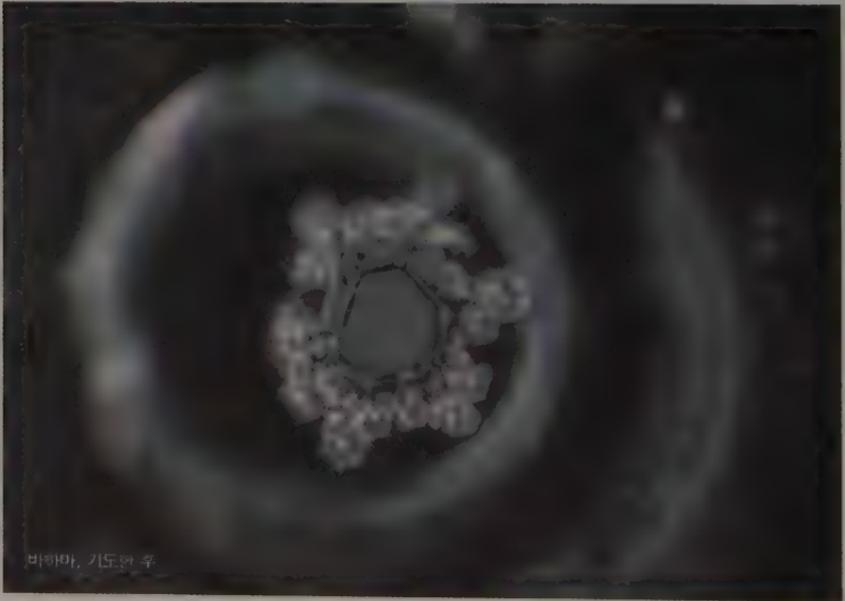
스위스 취리히 프. 기도하기 전



기도하기 전에는 결정이 이루어지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선명한 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하마 기도하기 전



바하마 기도한 후

바하마에서는 테이블에 올려놓은 컵에 담긴 물을 둘러싸고 손을 마주잡은 채 기도를 올렸습니다. 물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콜라호마 우치 호, 기도하기 전



오콜라호마의 우치 호에서 지역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물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와 함께 결정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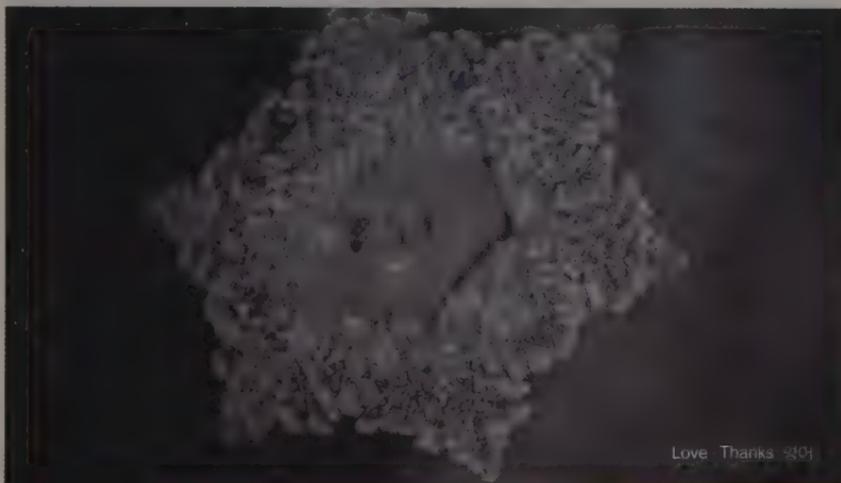
도쿄로자와의 빗물, 3년 전



도쿄에서 가까운 도쿄로자와는 쓰레기 소각 때문에 다이옥신에 오염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에 따라 빗물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랑·감사’를 3개 국어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듯한 ‘사랑·감사’ 결정.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독일어로도 찍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건 똑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감사’란 말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여기로 돌아옵니다. 이 결정의 아름다움을 늘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강과 함께 해왔습니다.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모든 문명은 물이 있는 곳에서 발생했고,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은 강변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나고 마차가 오가고 자동차가 길을 가득 메워도 강은 평온한 얼굴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강변을 거닐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찰랑거리는 수면을 바라보며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손에 넣자 사람들은 강의 흐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큰 이익을 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1971년 나일 강에 길이 3.6킬로미터, 높이 111미터의 아스완하이 댐이 세워졌습니다. 이 댐 건설을 위해 거대한 아부심벨 신전이 옮겨지고, 약 10만 명이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댐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나일 강의 범람이라는 유사이래의 난제를 극복하고, 그 물을 마음껏 조절하여 이집트 전력의 4분의 1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윽고 그 댐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일 강 하구는 이제 더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

에 관개공사로 농지에 물을 대고 비료를 뿌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관개는 흙에 포함된 염분의 농도를 높여 토양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저수지나 수로의 물에 해충이 만연하여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아가 삼각주 지역에서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자연재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환은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물이 몇 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홍수를 즐겨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강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선물이었습니다.

댐은 수만 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생태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일이 저수지에서서도 일어났습니다. 저수지에서 잡은 물고기가 모두 수은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원래가 산간지역이었던 그곳에 물을 끌어들인 데에 있었습니다.

물속에 잠긴 식물은 세균의 좋은 생활터전이 되어줍니다. 마음껏 증식한 세균들이 흙 속의 수은화합물을 흡수하여 메틸수은이라는 독성을 가진 물질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생태계 속에 농축되어 물고기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캐나다의 제임스 만에서 피스 강에 걸친 지역에 사는 원주민 쿠

리족은 물고기를 잡던 호수가 발전소 건설과 함께 저수지로 변환 뒤로 머리카락에서 고농도의 수은이 검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같은 예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 또한 자연스런 물의 흐름을 인간의 손으로 바꾸어버린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단지 물의 흐름만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체들이 자아내는 섬세한 생태계의 순환도 막아버렸습니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에서 살충제로 뿌려지는 DDT를 비롯한 화학물질이 물을 오염시키고 물고기와 새를 멸종으로 몰아가는 작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클로르덴, 헵타클로르, 디엘드린, 알드린... 염소화탄화수소라 불리는 이런 물질들은 마치 악마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카슨은 1955년에 일리노이 주 셸던에서 풍뎅이를 구제하기 위해 맹독성의 디엘드린을 뿌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약이 토양에 스며들면 벌레들이 지면으로 기어올라 죽습니다. 다음으로 올새, 꿩, 찌르레기 등이 죽습니다. 벌레를 먹거나 독약이 든 물로 목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람쥐와 토끼의 사체가 사방에 널리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농가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90퍼센트가 죽습니다. 그 피해는 기르던 양에게도 미칩니다.

그러나 정부와 주 농업국은 더 강한 독을 몇 년에 걸쳐 또 뿌립니다.

레이첼 카슨은 그밖에도 화학물질이 강의 연어나 송어에 미치는 영향, 약품에 의한 암 발생률 증가를 고발합니다.

당연히 카슨의 주장은 농약업계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들은 카슨의 논리를 폄하하고, 심지어 히스테리 환자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에 나와 반론을 펼치는 그녀의 이성적인 태도와 인품은 시청자들 가슴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윽고 정부도 그녀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슨의 혜안과 지혜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카슨이 경고한 것은 이러한 맹독성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오염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이 만들어내는 죽음의 연쇄, 곧 붕괴형의 순환입니다.

화학물질로 해충이나 잡초를 제거할 때 많은 생물이 죽고, 흙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생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흙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흙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언제까지고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끊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카슨이 경고한 지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DDT나 디엘드린 같은, 그 당시 그녀가 경고한 물질은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물질이 금지되지 않은 채 팔리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해온 생명의 사슬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하여 이 위대한 순환의 고리를 잘라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폐와 파괴로 나아가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따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조용히 생각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흐르는 물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과 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의 꽃, 나무, 새, 벌레, 작은 생물들... 그 모든 것은 물을 사랑합니다. 흐르는 물 또한 자연의 생명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도 이제는 그 순환의 사슬 속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

다. 진심으로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당신을 사랑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지구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사랑은 모든 생명과 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파동, 그 신비의 세계

4



“옛날 옛날 어느 산꼭대기에 마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무스름한 얼굴에 하얗고 긴 수염을 기른 애보리진(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장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여든넷에서 여든여섯 사이. 정확한 나이는 본인도 가족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나는 강연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원주민 장로 에릭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식당에 그는 다섯 명의 가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선물로 가져간 물 결정 사진집을 건네주자 그는 그것을 들고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더니, 내게 먼 옛날이야기 하나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성질이 고약한 마녀였습니다. 지금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북쪽에 흐르는 강의 먼 상류에 마운트리지리는 산이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계下界를 내려다보던 마녀는 깨끗한 강변에서 행복

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심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녀는 마법을 걸었습니다. 강물에 자신의 질투를 실어 자신만이 행복하고 싶다는 탐욕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또 마녀는 물이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강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물이 거의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게 되자 강에는 더러운 물이 흘렀습니다.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둑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싸움질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가 물에 새겨 넣은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을 강물에 새겨 넣는 것, 그것이 바로 파동의 원리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오는 이야기 속에 파동의 원리가 들어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 사람은 경험으로 그런 진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릭 씨의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년이나 계속되던 어느 날 한 청년 마법사가 개를 끌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캥거루의 뒤를 따라 개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이나 지난 뒤에 무슨 영문인지 개는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개의 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오염된 강물과는 다른 아주 깨끗한 물이

었습니다.

그런 깨끗한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진 청년 마법사는 개의 안내로 산꼭대기에 가까운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는 마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깨끗한 강의 흐름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마법사는 마법을 걸어 마녀를 물로 바꾸어 강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마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강물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강 하류에 물이 고인 곳은 그때 마녀가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힘껏 발을 내디뎠던 흔적이 남아서라고 합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하구에서 커다란 바위에 달리붙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마녀에게 청년 마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새긴 저주의 마음을 바꾼다면 살려주지. 앞으로는 이 자리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하느냐?’

마녀는 그러마고 약속하고 바위 위의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처럼 행복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된 마녀는 그 뒤로 파수꾼이 되어 마을 사람이 위험한 하구에 다가오면 가지를 마구 흔들며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한 이국땅에서 물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계의 여러 곳에서 전하는 많은 신화와 전설이 그러하듯 원주민이 전하는 이 이야기도 우주의 진리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무엇보다도 물이란 흘러야 한다는 것, 흐름이 멈추었을 때 강물은 죽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아가 질투와 탐욕은 모든 것을 뒤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은 사람의 감정을 읽어 그것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것입니다. 물에 어떤 메시지를 실을 것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옛날 사람에게 판타지와 과학, 철학은 하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치란 신을 모시는 일과 같았고, 의사 또한 기도와 치료를 행하는 샤먼이었습니다.

물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지지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과학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밝게 드러낼 수 없는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정 사진은 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엄한 판타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판타지야말로 진리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얼렸을 때 나타나는 결정은 절대로 똑같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 결정에도 똑같은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강연에서 결정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코 똑같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만일 몇 번의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과학적 재현성)를 추구한다면—물론 이 세상에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 재현성이란 것이 있다면 가능한 말이겠지만—한 장의 결정 사진을 가려 고르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찰할 때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결정 사진을 전부 보여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데에 그럴듯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동물도감에 실린 개의 사진을 보

고 ‘개는 모두 얼굴이 다른데 왜 이런 사진을 실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장의 결정 사진을 고른다는 것은 그 사진이 어떤 상황이 만들어내는 결정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정 사진을 찍고 가려 고르는 과정은 어떤 것 일까요? 그것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결정 사진을 찍으려면 우선 50개의 살레에 스포이트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영하 25℃로 얼린 다음 현미경으로 결정을 찍습니다. 물론 이때 50개의 살레에 모두 똑같은 결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여 찍은 결정 사진을 그 형태에 따라 ‘아름다운 결정’ ‘아름다운 경향을 보이는 결정’ ‘육각형’ ‘방사형’ ‘격자’ ‘부정형’ ‘함몰’ ‘결정 없음’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분류해가면 그 물이 보여주는 결정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정 사진에서 소개한 아리아키 해의 이사하야 만으로 흘러드는 모토아키 강의 결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으로 흘러들기 직전’으로 소개한 물 결정은 육각형을 이루지 못하고 찌그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이 결정 사진들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결정, 아름다운 경향을 보이는 결정, 육각형 - 0개
방사형 - 2개
격자 - 6개
부정형 - 29개
함몰 - 2개
결정 없음 - 11개

이 결과에서 거의가 찌그러진 결정, 또는 결정을 이루지 못했으며, 아름다운 결정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 없음’도 11개나 됩니다.

이 가운데 이런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을 하나 고릅니다. 이 경우는 부정형으로 분류된 것에서 가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형태가 아름다운 결정으로 소개한 ‘강의 원류’에 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름다운 결정 - 2개

아름다운 경향을 보이는 결정 - 4개

육각형 - 0개

방사형 - 4개

격자 - 8개

부정형 - 29개

함몰 - 3개

결정 없음 - 0개

이때는 아름다운 결정을 대표로 골랐습니다. 물론 통계로 보아서 50개 가운데 고작 두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결정이 나타나는 경우, 아름다운 경향을 보이는 결정이나 단순한 육각형(이 경우는 없었지만), 방사형이나 판자 모양과 같은 부정형이나 격자 모양이 많이 나타나며, 그 정점에 아름다운 결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 많은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의 경우 전체적으로 잘 정돈된 결정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대표를 가린다면 아름다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그 법칙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숫자가 많은 쪽의 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결정을 하나 선택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선택하는 사람의 감성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몇 가지 결정 사진을 선택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가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결정 사진은 모두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 사진이 발표되어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과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파동의 세계는 너무 혼란스러워 수학적인 데이터로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명확히 가려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계를 덮고 있는 진리라는 거대한 포장의 한 단면을 부여잡고 그것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물 결정 사진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말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어떻게 물이 전혀 다른 결정을 보여주는가? 물의 성질이 왜 그렇게 변하는가? 상식적

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물의 사진을 찍어 보여주자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아직 물 결정 사진을 찍어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 나는 파동측정기를 알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로 부터 건강 상담을 받고, 물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친구 딸이 나이가 아직 스물셋밖에 안 됐는데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남자의 친구도 몇 년 전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의과대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대학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경과가 별로 좋지 않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대학병원 병실에 파동을 전사하는 기계를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동에 대해 주치의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의사는 그런 것을 인정해주지도 않을 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파동을 전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있어야 하고, 또 가족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날로 병원에 가 환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나와

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열의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도라는 건 사진만으로 어떤 사람의 파동을 전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딸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끈기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의 마이너스 파동(부정적인 파동)을 지운 뒤에 그 배후에 있는 파동을 또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하나 하나 파동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진을 파동측정기에 넣고 거기서 나오는 파동을 물에 전사했습니다. 그 물을 환자에게 마시게 하고, 마신 다음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병실과 내 사무실을 하루에 세 번씩이나 오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파동을 측정했더니 ‘불안’이 나왔고 ‘위궐’와 동조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 환자는 구역질을 하며 거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진에 그 사람의 파동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확신한 나는 나아가 다음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측정된 마이너스 파동을 지울 수 있는 파동을 사진에 직접 전사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측정해보니 그 파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진이 본인의 대리역을 해준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며칠 뒤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환자의 사진에서 파동을 측정해보니 생소한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나도 이름은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해온 측정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물질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자 놀란 것은 오히려 환자였습니다. 그 화학물질은 바로 그녀가 그날 맞은 주사제의 성분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나 자신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를 믿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항암제의 파괴적인 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파동수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항암 치료를 더 받고 나서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그녀는 복학을 했고 지금은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그 사람의 고유한 파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종의 ‘생각念’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발생하는 그런 파동 정보를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실린 행방불명자나 실종된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능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런 걸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을 알리는 신문기사에 실린 등산가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 등산가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조난당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이처럼 시공을 넘어 사실을 직접 느끼는 ‘천리안千里眼’과 같은 능력을 간직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에 ‘고토다마言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 자체에 혼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말에 담긴 의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물에 말을 보여준다는 아이디어도 원래 파동을 측정하다가 떠오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을 잃은 사람들인데, 개중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내 사무실까지 오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 이름을 워드프로세서로 치게 해서 그것으로 파동을 측정합니다. 이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물에다 ‘마더 테레사’ ‘아돌프 히틀러’ 등의 이름을 보여 주고 결정 사진을 찍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상징하는 듯한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세계 어딘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터이므로 이젠 그런 실험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망할 놈’ 같은 말을 보여주면 물은 그 말의 성질을 포착하여 결정을 만들어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그 말을 물에게 하면 그 목소리나 말의 울림에 따라 그 뜻이 많이 달라지고 맙니다. 똑같은 ‘망할 놈’이라는 말이라도 상대를 저주할 때와 친밀감을 나타내는 농담은 거기에 담긴 의미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물에 말을 보여주는 경우엔 오히려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말 그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결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생각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질 따름입니다. 왜 사진이나 말로 어떤 정보가 시공을 넘어 전달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파동은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라도 순간적으로 전달됩니다.

사진이 정보를 가지는 것도 거기에 의식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풍경이나 꽃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나 친구나 애인 사진을 보고 그리워하는 것은 사진이 의식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증명사진도 그것이 본인으로 인식되기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이나 써온 말에는 그 말이 뜻하는 세계의 정보가 배어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몇 개 가려내고, 그와 똑같은 수의 의미도 없는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뒤섞어서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뜻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물론 가짜가 섞여 있다는 사실은 감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짜에 비해 진짜 히브리어 쪽을 훨씬 더 많이 맞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권에서 소개한 루퍼트 셀드레이크 박사의 이론을 실증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의 이론으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말에는 그 의미를 인식하는 ‘형태의 장場’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혀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뜻을 추정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형태의 장’이란 눈에 보이는 것도, 에너지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형태의 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두 번 일어난 일은 세 번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역사는 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고도 합니다. 지구의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은 그렇지 않은 말보다 습득되기 쉽습니다.

좀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어떨까요? 독일에 갔을 때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개해보겠습니다.

한 의사가 몇몇 환자의 혈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액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밀봉되어 보존되고 있었으므로, 그 성분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해 뒤에 과학적으로 조사해보니, 무슨 영문인지 혈액의 성분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일은, 두 해 전에 뽑은 혈액이 지금 그 사람에게서 뽑은 혈액과 똑같은 상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두 해 전에는 어떤 병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면, 그때 보존한 혈액도 지금은 건강한 혈액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2천 개 이상의 예를 들어 이것을 증명하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도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하는 의사를 독일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든이 넘는 고령의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한 실험은 이른바 펜듈럼(pendulum)(수맥 등을 찾는 데 사용하는 금속 추)에 의한 진단입니다. 손가락 끝에 미량의 혈액을 묻혀 종이에 배게 하고, 펜듈럼으로 그 피를 진단합니다.

이 방법에서도 한 번 뽑은 피를 두고두고 사용했습니다. 곧 두 해 전에 뽑은 혈액을 펜듈럼으로 진단해도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파동의 원리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소개한 파동에 관한 세 가지 키워드에 비추어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파동이란 '진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뽑은 혈액도 진동을 발하고 있고, 그 진동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파동은 '공명'입니다. 두 해 전에 뽑은 혈액이라도 본인

의 파동과 공명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추어 성질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성질에 '닭은꼴'이 있습니다. 어떤 파동이라도 미시 또는 거시의 파동이 존재합니다.

보존된 혈액은 그 몸의 미시적인 대응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컨디션에 맞추어 혈액의 성분이 바뀌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파동이라는 렌즈로 보면 세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도 그 실마리를 드러냅니다. 파동에 의하여 우리는 더 가까이 진리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불가사의한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5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는 회사를 세워 미국에서 통증을 없애주는 저주파 치료기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리 로렌첸이라는 생화학 박사였습니다.

로렌첸 박사의 부인은 아주 병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모든 치료법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른 곳이 바로 물이라는 세계였습니다.

그는 전기기술자와 물리학자와 팀을 짜서 좋은 물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물은 정보를 전사한다는 것이 그의 가설이며,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특수한 효능을 가진, 몸에 좋은 물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느 날 그 물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로렌첸 박사와 물을 연구하는 두 연구자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학창시절에 럭비를 하다 다친 왼쪽 발목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 불편한 걸음걸이를 보고 세 사람이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겨우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물을 내게 권했습니다. 그 물을 아픈 발에 발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바른다고 통증이 없어질 리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나는 부어오른 발목에 그 물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빙글빙글 돌려도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물이었습니다. 나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몸에 좋

다는 특수한 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물도 그런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계약을 맺은 뒤, 나는 그 세 사람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도쿄, 나고야, 오사카 세 도시에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포지엄은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입장료를 무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 자신도 그 이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통역자도 어떻게 통역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해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즐거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을까요.

물은 인간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 물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이란 먼저 가설이 있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측정기기나 분석기술이 나왔을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약품 성분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의 성질을 조사 측정하는 기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바로 로렌첸 박사에게 연락하여 그런 기기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측정하고 전사하는 기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계를 일본에 소개한 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등, 내가 만난 사람만도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1992년 이래로 나는 파동에 관하여 1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그 기계를 본뜬 파동측정기도 많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파동'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은 파동에 흥미를 가진 사람, 나아가 파동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을 합하면 몇 십만, 몇 백만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진화의 문을 여는 힘을 느끼게 하는 현상입니다.

파동을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

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마치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처럼, 그 말을 외치면 세계의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파동을 알면 알수록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물 결정에는 절대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보인 결정은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선별된 하나의 대표이며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정 사진을 찍을 때의 환경, 시간, 사진 찍는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까지 모두 물 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와 비슷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가 제창한 것인데, 양자역학을 더욱 완전하게 만든 뛰어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란 ‘전자를 관측하면 할 때마다 다른 움직임을 보이므로 그 움직임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측하는 것 자체가 전자에 새로운 움직임의 계기가 되므로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관찰하려면 전자에 빛을 쬐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의 양자가 닿으면 전자가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므로 실제 있는 곳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곧 불확정성 원리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 우리는 일부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이 원리는 과학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관측하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느냐 '망할 놈'이라고 욕을 하느냐에 따라 물은 다른 결정 형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결정을 찍을 때는 한순간 한순간 변화하는 모습을 찍어야 합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때가 조금만 달라도 결정의 형태는 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불확정적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저녁에는 해가 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당연한 사실도 오랜 우주의 역사로 본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지나지 않으며, 영원히 재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50억 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태양은 서서히 팽창하여 마침내 지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그런 과

정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50억 년, 우주의 역사로 본다면 결코 오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약 70년 전부터 파동을 예견하고 연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해럴드 색스틴 버 박사입니다.

그는 ‘생명장life field’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생명의 신비를 풀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반년마다 그 세포가 완전히 교체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해럴드 색스틴 버 박사는 젤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틀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장으로서 존재하고, 거기에 맞춰 물질이 형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틀이 바로 생명장입니다. 박사는 생명장이란 전기력의 장이므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전압계와 전극을 활용한 독특한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장은 컨디션에 따라, 또는 마음 상태에 따라 변화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는 피실험자의 전압은 높고, 거기에 비해 우울한 사람은 전압이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파동측정기와 비슷합니다. 파동측정기는 몇 개

의 코드번호를 입력하여 어느 파동과 동조하는지 확인해줍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반드시 감정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코드 번호로 분류하여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는 자신의 책 《생명장의 과학》에서 미래엔 사람의 감정도 밀리볼트mV라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동의 세계에 관계해본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모든 곳에 작용하여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일어나는 일도, 살고 있는 세계도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세계는 혼돈일지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혼돈 또한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혼돈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지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 곧 우주가 생기기 전 질서가 없는 상태, 그것을 혼돈이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망설여지고 힘이 없을 때는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고하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강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물에 이룰 때 5

어린 시절 몇 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어 왔
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땅이 마구 떨어지고 화산은 새빨간 불기둥을 뿜어냅니다. 바다에
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더니 마을을 삼켜버립니다. 집과 큰 건물
들이 보잘것없는 주사위처럼 무너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
망칩니다. 고탈소리와 비명, 그 소리를 지워버리는 거대한 땅을
림….

매일 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꿈을 거의 꾸지 않
게 되었지만, 아마도 천 번은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 꿈을 꿀 때마
다 가위에 눌렀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
습니다.

왜 그런 꿈을 되풀이해서 꾸었는지 아직도 그 까닭은 모릅니다.
비록 꿈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장면은 내 마음속에 새겨져
문득문득 얼굴을 내뺍니다.

20세기 말, 사회는 막연하나마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추어 정신세계에 새로운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가 멸망할 때로 예언한 1999년 7월이
별 탈 없이 지난 뒤에도 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제기됐고, 20세기

말부터 금세기에 걸쳐 뭘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재해나 전쟁,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 가슴속에 칩칙한 회색빛 불안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사히 그런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21세기. 우리 눈앞에는 멋진 황금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두 대의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말 그대로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전화戰禍는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숨어 있던 불씨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희망으로 맞이한 새로운 세기의 첫 페이지가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어릴 적 꾸었던 꿈의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인류의 종말, 세계의 파괴, 또는 지구를 뒤덮는 대재앙catastrophe과 같은 예언이 나왔습니다. 난 그런 것을 믿지 않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능한 한 부정하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그런 걸 그리거나 말로 하면 그것이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눈으로 살펴보면 인류는 파멸의 단계를 착실하게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경이적인 인구폭발(100년 동안 세계 인구는 네 배로 불어났고, 앞으로 50년 사이에 1.5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과 급격한 공업화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큰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지구의 온도는 앞으로 100년 사이에 4에서 6℃가 올라가고, 해수면은 최고 80에서 150센티미터나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는 물에 잠길 땅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그 해수면이 조금씩 상승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남극에서는 이미 거대한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보다 더 큰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곳곳의 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도쿄 같은 해안가 도시는 그냥 물에 잠겨버릴 것입니다.

또 온난화는 기상이변을 일으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세계에서 큰비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식량문제도 세계 여러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꾸었던 악몽이 현실로 되는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 10년 또는 20년 전보다 생활리듬이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바늘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체감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상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회를 회전운동을 하는 커다란 팽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 름하여 '물질문화 팽이'.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물질문화 팽이는 점점 커져갑니다. 지름이 커지는 것입니다.

팽이의 테두리에 있는 우리는 지름이 커질수록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며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작은 팽이에선 1초에 고작 몇 센티미터만 움직이면 되지만, 큰 팽이에선 수십 센티미터 또는 수 미터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은 똑같아도 현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팽이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주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물질문화 생활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곧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물질을 줄이고 '가볍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문화의 슬로건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물질문화 팽이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도, 개인의 수입도, 나라의 경제도 지난해보다 더 커져야 합니다. 만일 지난해보다 적어지거나 현상유지만 하는 상태가 되면 불경기라 하여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만일 그해의 목표치가 잘 달성된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기는커녕 하기도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커질수록 개인은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주어진 일만을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작고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산업구조도, 기업도,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에서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평사원의 신분으로는 과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으면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곧이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어 그 영역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사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서가 다르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큰 회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 바깥에 더 큰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 일에 쫓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개인의 능력이 좁은 범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더 작은 '장'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회사의 경우, 50명 정도가 모이면 새로운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장이 하나 탄생합니다. 것처럼 회사가 커지면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 나갑니다. 그 최소 단위

는 50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천 명의 종업원이 20개의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맡는 일의 중요도는 몇 배나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적어진 만큼 서로의 얼굴이나 성격을 잘 알 터이므로 인간적인 교류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장'도 더 넓어질 것입니다. 대학을 나온 신입사원도 몇 년이 지나면 중역이 되기도 하고, 사장도 꿈만 꿀 자리는 아니게 됩니다.

작은 것이 좋다는 사상은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도 적용되고, 시·市나 구·區 조직에도 적용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큰 게 좋다는 상식이 너무도 당연하게 통용되던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무리를 거듭해온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금융기관이나 건설회사, 유통업체 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도 사회의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지 모릅니다. 물론 테러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입니다. 그러나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왜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었느냐 하면, 그 건물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건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종래의 마을 개념에서 벗어나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곳에서는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을 지향하는 생태마을eco-village이라는 공동체가 각지에 생겨나고 있고, 그런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구상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소비 중심 생활을 극복하고 자급자족에 가까운 최소한의 물질로 생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소비사회의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항하는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획일화된 하나의 가치로 묶으려 하는 세계통합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본에서도 지역통화라는 새로운 돈의 형태가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통화란 수치로만 거대화되어 투기자금 따위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지금의 돈과는 달리, 단순히 같은 값의

물건이나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는, 본래적인 돈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그 시작에는 공동체적인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이나 시도들은 모두 환경을 지키자는 본질적인 취지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소를 대량으로 사육하기 위해서 숲을 없애거나, 먹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더 많은 새우를 얻기 위해 맹그로브 숲을 파괴하는 업자들의 행위에 대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석유자본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그 근본을 따져보면 석유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유에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있는 한 우리는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네온사인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석유가 고갈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갈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깃볼도 켤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전기제품들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식량을 옮길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반은 이렇게 허약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다음 시대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 나아가 석유제품을 대신할 신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마麻’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는 평소 우리들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식물입니다. 여름이 오면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한 삼베옷을 한 벌 걸쳐보는 정도의 경험밖에 없습니다.

이 마라는 식물은 앞으로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환상적인 식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마大麻의 쓸모는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마의 줄기로 종이와 삼베, 플라스틱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이는 같은 면적에서 재배할 수 있는 나무에서 만들어내는 것의 네 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대마로 만드는 삼베는 농약에 오염된 면보다 피부에 좋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면의 서너 배나 됩니다.

대마의 씨앗과 줄기에서는 디젤유, 메탄올, 에탄올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료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유황이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회사인 포드가 대마를 이용하여 만든 플라스틱을 차체에 장착하고, 대마의 씨앗에서 짜낸 기름을 연료로 하여 달리는 자동차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는 식용으로도 쓸모가 큽니다. 씨앗에는 콩과 같은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도 잘됩니다. 필수아미노산과 지방산도 포함된 이상적인 영양식입니다.

대마의 씨앗에서 짠 기름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마자인(麻子仁)'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보습 성분이 있어서 샴푸나 화장품 원료로도 아주 좋습니다.

나아가 대마에는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항생물질, 항우울제, 진통제, 두통약으로 연구되고 있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암이나 에이즈, 류머티즘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의 장점은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110일 만에 2~3미터 높이까지 자랍니다. 따라서 한 해에 몇 번이나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무술을 하던 사람들은 대마를 심어서 그것을 뛰어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막 짝이 돋았을 때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줄기가 뻗어서 사람 키만큼 자라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높이뛰기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대마는 그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능력이 다른 식물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다고 합니다. 대마가 들이마시는 이산화탄소 양은 낙엽수의 서너 배는 된다고 합니다.

대마는 인류를 구원해줄 만능의 식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마의 마약 성분에만 눈길을 돌려, 세계적으로 재배를 금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조사 결과 마리화나, 곧 대마초에는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따위와 같은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마약 성분은 없다고 합니다. 나아가 독성도 없을 뿐더러 대마초를 너무 피워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마약국은 대마를 마약으로 분류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마금지법과 마약금지법은 전혀 다른 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대마가 금지품목이 되고 말았을까요. 거기에는 세계 경

제를 좌우하는 석유산업의 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석유를 중심으로 한 산업을 세계로 퍼뜨리려는 자본가나 재벌에게 대마는 심각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마의 위험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법률로 발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가 대마와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대마로 만든 배와 돛, 로프가 있었기 때문이고, 독립선언문도 대마로 만든 종이에 썼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대마 재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국이 앞장서서 대마를 금지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1937년 미국은 '마리화나 과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마가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대마 거래에 대해 세금을 엄중히 매기고 제한한다는 법입니다. 그 뒤로 사실상 대마 재배는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후에 미군정의 지도에 따라 대마거래법이 만들어지고 대마 재배가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전통행사 정도에 한에서만 허용될 따름입니다.

2001년 7월, 미국에서 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대마 씨앗에서 짠 기름(바이오디젤)을 연료로 쓰는 자동차가 수도 워싱턴에서 출

발하여 1천 마일을 달리며 미국을 일주하는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마가 자원으로 지닌 쓸모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도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에 일어난 9.11테러 때문에 그 실험은 소리로 없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 일본인 몇 명이 일본 전국을 ‘햄프카(대마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나카야마 야스나오中山康直 씨입니다. 나카야마 씨는 대마가 인류 미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물자원임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대마를 알게 된 것은 어떤 불가사의한 체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카야마 씨는 중학교에 다닐 때 연못에서 친구와 헤엄을 치다가 그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만 적이 있었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몸이 가라앉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장면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빛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어느새 나카야마 씨는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도 거기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름다운 잎을 자랑하는 한 식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식물을 보는 순간 참 신기하게도 그윽한 평온을 느꼈다고 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연못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에서 보았던 모습들은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카야마 씨는 나는 무엇인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우주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아시아 여행에 나섰던 나카야마 씨는 빛 속에서 보았던 그 식물을 만나게 됩니다. 녹색 잎을 보는 순간 분명히 그 식물임을 알고 나카야마 씨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식물을 깊이 연구하면 중학생 때의 신비로운 체험 이후 줄곧 마음속에 품어왔던 나, 우주, 생명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식물은 바로 대마였습니다. 그 뒤로 나카야마 씨는 대마 연구를 평생의 과제로 삼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햄프카로 일본을 횡단하는 프로젝트는 2002년 4월 29일에 홋카이도를 출발하여 아오모리, 모리오카, 센다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 다카마쓰,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22개 도시를 거쳐, 8월 24일에 목적지 구마모토에 있는 헤이다테 신궁幣立神宮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햄프카는 디젤엔진을 단 버스에 경유 대신 대마기름으로 만든 '바이오디젤 연료'를 넣고 달리는 차입니다. 바이오디젤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유황산화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매연도 석유에서 나오는 경유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햄프카는 전국을 돌면서 대마와 인연이 깊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지인 헤이다테 신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인데, '헤이幣'란 말이 대마를 이르는 말입니다.

나카야마 씨는 세계에 실크로드가 아닌 '햄프로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햄프로드는 고대 태양신앙에 기초한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고대 일본에도 태양신앙에 기초한 풍성한 순환형 사회가 존재했으며, 햄프로드를 돌아보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

다. 고대 일본에서는 마에는 힘이 깃들여 있고 부정을 씻어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대마의 빠른 성장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주파수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얼마나 빨리 진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1초에 몇 번 호흡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몇 년에 걸쳐 자라는 것에 비해 대마는 한 해에 몇 번이나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이것은 대마가 보통 나무보다 호흡이 빠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곧 대마는 아주 높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를 가지고 낮은 파동, 그러니까 악령이나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1999년 7월, 내 제안으로 일본 비와 호에 약 350명의 사람이 모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당시 나이가 아흔일곱이었던 시오다니 노부노鹽谷信男 선생이 만들어 오신 '대단언大斷言'이라는 기도의 말을 목소리를 모아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마다 비와 호에 발생하던 녹조가 그해에

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호수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던 악취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도를 외국에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과 취리히 호, 바하마를 방문했을 때 나는 현지인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도 컵에 담은 호수 물을 얼려 결정 사진을 찍어 보니 기도를 드린 뒤에는 뚜렷이 그 결정이 잘 정돈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을 하고, 마음을 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면, 그것은 파동이 되어 우주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소리에도, 들리는 소리와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의 최대 주파수는 20킬로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소리가 있습니다. 초음파라는 것입니다.

또 빛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나노미터의 전자파로, 그보다 파장이 높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선(전자파)이 존재합니다.

곧 어떤 세계에도 인간이 느끼는 세계와 느낄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세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박쥐는 초음파를 내보내 장애물을 피하므로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셈입니다. 개는 인간이 맡을 수 없는 냄새도 민감하게 맡을 수 있는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나 박쥐는 초능력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이나 생명체에도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와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의식이 존재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있는 세계도 우리의 세계와 비슷한 세계일 것입니다.

소리를 들어 설명하자면, 주파수를 두 배로 하면 1옥타브 위의 소리가 나옵니다. 또 세 배, 네 배로 주파수를 높여가면 이윽고 그 소리는 초음파가 되어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돌이나 풀, 나무라도, 또는 동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독자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응하는 고주파수의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다면, 이러한 높은 파동을 가진 존재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고토다마인 것입니다.



신은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으므로(물론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증거로 그 존재를 추론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동의 원칙으로 생각해보면 그 존재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독자적인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전공학이나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을 만든 위대한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고도 합니다.

내 경우는 그런 존재를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물 결정입니다. 기도가 이 세계를 바꾼다는 것을 또렷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해준 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기도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원이 이 세계를 바꾸어갑니다.

기도란 특정 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를 바꾸어가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공명해주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멋진 세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으로 이끌어낸 $E=MC^2$ 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의미를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C는 의식conscious이고, M은 질량mass, 곧 사람의 수입니다.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늘면 늘수록 이 방정식처럼 그 에너지는 비약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유효미생물균을 개발한 히가 데루오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생물 세계에서 나쁜 균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균도 극소수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회주의 균'입니다. 그러니까 무해한 균인 것입니다. 이런 균은 나쁜 균과 좋은 균의 세력을 살피고 있다가 강한 쪽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인간세계도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극소수이지만, 이 세상에는 세상을 좋은 쪽으로 이끌려는 능력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구를 더욱 좋은 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을 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를 따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일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입니다. 민족 간의 이 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분쟁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한 세계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과 원한은 이미 유전자에 새겨져 버린 것이 아닐까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증오심은 그만 유전자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유전자는 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DNA는 두 개의 사슬이 나선형으로 얽혀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수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조상의 기억은 무엇으로 후세에 전달되는 걸까요? 바로 피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몸속의 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몸속을 흐르는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요르단 강입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르

단 강을 따라 그 서쪽에 남북으로 가늘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식수는 모두 요르단 강 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도의 힘은 시공을 초월하여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 기도를 올려도 요르단 강을 흐르는 물에 사랑과 평화의 파동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곳곳에 호소하여 요르단 강을 향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평화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을.

요르단 강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런 파동을 받아들여 몸속에 아름다운 결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다행히 물 결정 사진 덕분에 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강연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의 사람들에게 물 결정 사진으로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지를 호소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흐르는 강물에 기도를 보내는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요르단 강은 갈릴리 호의 남쪽에서 흘러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를 향해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여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일제히

기도를 올리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하프harp'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비와 琵琶(비파) 호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나는 그 기도의 날을 2003년 7월 25일로 잡았습니다. 7월 25일은 마야인이 사용하는 1년(13개월)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한 해에 하루밖에 없는 마지막 날, 마야인들은 이날을 '시간이 없는 날'로 정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꼭 7월 25일을 '물에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날'로 하여 국제적인 휴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내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2002년 7월에 '물에 대한 사랑과 감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다음해 7월 25일의 세계적인 이벤트에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2003년의 행사를 목적으로 했지만, 조금씩 기도의 동아리를 넓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릴 생각을 했

습니다.

매달 25일 오전 7시 25분과 오후 7시 25분에 물을 향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엌에서도 좋고 자기 방에서도 좋습니다. 물 한 잔 떠놓고 그 물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한 잔의 물은 지구상의 모든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그 순간 온 지구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중이라도 좋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 당신의 손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닿을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 지구상의 모든 물과 하나로 연결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면 됩니다.

당신이 물을 향해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파동은 황금색 또는 은색의 빛이 되어 물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 눈부신 빛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 전체가 찬란한 빛을 발하고, 그 환함은 이 별이 치유와 조화로 가득한 것임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물은 사람들 마음을 나르고 행복을 나눕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물 그 자체입니다. 어디에 있든 기도는 세계 곳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지구의 어딘가에서 터무니없

는 다툼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에게, 병든 노인들에게, 지뢰를 밟아 발을 잃고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릴 적 꾸었던 그 무서운 꿈은 파멸을 예견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감사로 가슴을 가득 채웁시다. 기도하는 마음을 세상에 전합시다. 자비의 마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흘러야 합니다. 살아 있는 한.

_에필로그

지금까지 함께 해온 물을 둘러싼 여행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여행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당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의미,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물로 돌아갈 때 대답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영국의 생물물리학자 제임스 러브록 박사는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는 '가이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지구의 자연은 생물이 살아가기 쉬운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에 포함된 산소량은 어디를 가나 거의 20퍼센트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절묘한 균형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어내고, 동물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지구는 그 균형을 유

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균형은 지구상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도 합니다. 그것은 계절이 바뀌어도 인간의 체온이 거의 일정한 것이나 같은 원리입니다. 생물이 탄생한 지 35억 년, 태양이 서서히 뜨거워져 왔어도 지구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디를 보나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럼 지구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물입니다. 물이 식물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균형이 깨지려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대기의 균형마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물은 아름다움입니다.

먼 우주에서 얼음 덩어리가 지구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고, 지구를 가득 덮은 자연도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한 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구를 장식하는 대자연, 대지에는 녹색 융단이 깔리고 비단실

같은 비가 내립니다. 구름 사이로 황금색 햇살이 비쳐들면 하늘 가득 무지개가 펼쳐집니다.

바다에 펼쳐지는 장엄한 파노라마, 깊이 잠길수록 짙어지는 푸른빛. 해면에서 반짝이는 햇살이 해초와 산호에 무늬를 그리고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가 기분 좋게 헤엄쳐갑니다.

그것은 예술 그 자체입니다.

물 결정도 그러합니다. 고급 진주가 내는 것 같은 광채, 섬세하게 새겨진 조각, 로코코 풍의 상들리에처럼 화려한 빛. 어떤 예술가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자연은 아주 간단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결코 다함이 없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체 누가 그런 일을 꾸미는 것일까요?

유전공학의 일인자인 쓰쿠바 대학 명예교수 무라카미 가즈오村上和雄 선생은 그것을 ‘Something Great’라고 했습니다. 방대한 유전자정보(1천 쪽 분량의 책 1천 권)를 우리 몸의 60조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에 적어넣은 존재.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창조주.

물은 그러한 존재의 뜻에 따라 이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은 거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비추어냅니다. ‘고맙습니다’고 하면 단아한 결정을 만들고, 사랑의 마음을 보내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 찬란한 결정을 보여줍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면 물도 오염됩니다.

바로 지금, 지구에는 깨끗한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은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은 하늘에서 떨어져 바다로 흘러들기까지의 아주 적은 양의 물뿐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짠 바닷물이고, 담수도 그 대부분이 빙하 상태로 있거나 높은 산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도 모두 사람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담수 가운데 고작 3분의 1만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 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1만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태는 심각합니다.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지하수이지만, 그것도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물의 오염이 마음의 오염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물은 되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물이 지구를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생명이 태어나 이 지구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 움직여 온 생명이 잘 순환할 수 있기를. 지성을 가진 인간이 태어나 문명을 이루고 지구를 지키며 사랑과 감사와 평화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사랑·감사’라는 말을 보여준 물이 어떻게 그런 아름답고 조화로운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말이 기도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물은 자연의 섭리에 맞는 것을 만나면 깨끗한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자연이란 기도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그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세계 어떤 민족이든 기도를 드립니다. 과학 만능의 현대에도 우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이 수술을 받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생각할 때...

물은 기도로 전달되어 생명을 창조하고, 그 진화의 끝자락에 있

는 인간이 지금 물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지키고 물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은 당신입니다.

물이 가르쳐주는 답을 당신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러내릴 때 모든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동심원은 바다를 건너 하나로 연결되고, 평화와 조화를 바라는 마음은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퍼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당당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흘러갑니다.

미래를 향해, 우주를 향해.

양역관

1956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경희대학교 국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20세기 신비 사상가들》 《소크라테스 최후의 13일》 《엑소더스》 《냉정과 열정 사이》 《공생충》 《교코》 《달콤한 악마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달빛의 강》 《나의 스승, 공자》 《초감각적 세계 인식》 《신지학》 《내 버터는 어디로 가버렸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등이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

1판 1쇄 펴냄 | 2003년 4월 11일

1판 2쇄 펴냄 | 2003년 4월 21일

지은이 | 에모토 마사루

옮긴이 | 양역관

펴낸이 | 고석

펴낸곳 | **나무심는사람**

주간 | 김철호

편집 | 박시화 장정희 박선희 최도연

디자인 | 박소희 박선희 이주연 박애영

마케팅 | 신희희 권태환 허경실 권미선 윤서경

제작 | 신태섭

등록 | 2000. 4. 19. 제10-a1542호

121-838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0-17

전화 02)3143-2900 전송 02)3143-2904

<http://www.namusaram.co.kr>

ISBN 89-88739-32-9 03830

*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교환해드립니다.

물만이 아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나뉜 봉투에 각기 '고맙습니다' '망할 놈'이라고 적은 다음 땅에 심으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한 씨앗은 윤기 흐르는 둥그런 잎사귀를 달고 무럭무럭 잘 자란 반면, '망할 놈'이라고 한 씨앗은 시들했다. 줄기를 잘라 단면을 보니 '망할 놈'이라고 한 줄기는 섬유질이 영성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이것이 해바라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라면...? 이 책은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이, 마음속에 품은 한 생각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지은이 **에모토 마사루** 江本勝는 1943년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요코하마 시립대학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에 (주)I·H·M을 설립했고, 1992년에 유네스코 산하 '오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대안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에서 공명자장분석기와 '마이크로 크리스터' 물을 알게 된 이후로 독창적인 물 연구를 해왔다. 현재 I·H·M 종합연구소 소장, (주)I·H·M 대표, I·H·M 국제파동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파동시대의 서막》《파동의 인간학》《물이 전하는 말》 등의 저서가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환경에 관한 책도, 자연과학 서적도 아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힘을 보여주는 책'이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이,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어수웅 | 조선일보 기자

저자는 물을 얼려서 그 결정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물을 연구한 뒤, 참으로 다양한 물의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돗물과 샘물이 다르고, 재즈를 들은 물과 아리랑을 들은 물이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얼굴들이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참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김석희 | 번역가

책을 읽으면서 놀라움과 함께 '설마 정말일까?' 하는 생각 역시 떨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에서 굴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예쁜 말, 하나는 욱설을 퍼붓기를 3~4일, 그것도 하루에 두세 번 한 것뿐인데도 눈에 띄게 부패 속도가 달랐어요. 예쁜 말을 해준 굴은 약간 상했어도 거기서 거기일 뿐이었는데, 욱먹은 굴은 절반 정도가 곰팡이가 썩어요. 감동이었습니다.

ID 환수 | 인터넷서점 '알라딘' 독자

파동에너지인 의식과 감정이 물의 파동과 공명을 일으켜 결정구조를 변화시켰음을 입증하는 책이다. 사람의 의식과 마음의 에너지가 물에 영향을 미치듯, 우리가 사랑과 감사라는 긍정에너지를 몸속에서 만들고 실천한다면 70%나 되는 몸속의 물도 건강하게 정화될 수 있다.

이유명호 | 한의사, 서울여한의사회 회장

값 8,000원

03830
9 788988 739327
ISBN 89-88739-32-9